

함께한 50년, 함께할 100년 교육가족의 행복파트너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난 50년,
교육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함께해온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앞으로도 교직원들의 풍요와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신축회관
'The-K Tower'



CONTENTS

2018 JUNE VOL.10



4
여는 글
6월이 유독 사랑스러운 이유

6
Essay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과 마음을 들여 알아가는 것
나의 첫 학년부장 이야기
손민아 경기 전곡중 교사

8
Inside Out
올 여름휴가는 특별하게 부탁해

10
Special Interview
즐거운 상상으로 세상의 길을 열다
김탁훈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영상학과 교수

16
Interview
희망의 씨앗, 오랜 시간 동안 품다
제7회 대한민국스승상 대상 수상
전영숙 경북 칠곡 왜관초 교사

22
아름다운 동행
첫 만남의 날실, 새 출발의 씨실
임서현 경기 오산대원초 교사 & 김민태 제주한라대 방사선과 교수

28
먼 나라 교육 편지
다양성의 나라, 카자흐스탄
김이연 국립국제교육원 해외 파견 교사

32
트렌드 Go Go
소확행, 트렌드를 넘어 일상으로

34
행복 만들기
그림책에 사랑하는 모든 과정을 담다
좋아서 하는 그림책 연구회

38
네오필리아
우리의 지구를 위한, 그린 스토리

40
브랜뉴 여행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숨은 보석,
도나우강 따라 흐르는 질은 예술의 향기
헝가리 - 부다페스트

46
아는 공간
기계 중심의 와이어 공장에서
재생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F1963, 다른 생의 가치

48
문화 캘린더
이달의 공연, 전시

50
재테크 팩토리
정량적 가계 분석과
효율적 비용 통제

52
The-K Focus
힘껏 던져라! 담장을 넘겨라!
공제회와 함께하는 프로야구 회원 초청 행사

56
The-K Family
도심 한복판에서 만끽하는 자연 속 BBQ·비어 파티
The-K호텔서울

60
The-K News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출자회사 소식

62
독자 이벤트
6월 즉석 당첨 이벤트

The-K

VOL.10



<The-K 매거진>은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발행인	문용린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www.ktcu.or.kr
발행일	2018년 6월 1일
편집	
기자	정수희 jsh@swadcom.co.kr
객원 기자	이경희 유현경 진미현
교열	박해경
디자인	
아트 디렉터	서희지 heezees@swadcom.co.kr
디자이너	김진이 genie@swadcom.co.kr
사진	
포토그래퍼	한상우 황원
사진 자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티
법률 자문	김병철(문장종합법률사무소)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아이원기술
제작 인쇄	(주)성우애드컴 02-890-0900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The-K 매거진>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1577-3400
보통콜센터	1577-3993

6월이 유독 사랑스러운 이유

따사로웠던 봄의 밤들이 저만치 멀어져만 갑니다.
그립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청량한 여름의 별이 기다리고 있으니깐요.

봄과 여름의 가장자리에 있는 시간,
6월은 봄과 여름을 잇는 시간입니다.
완성의 시간 전에는 이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시간과 시간을 잇는 모든 것들에 말이죠.

'심(心)이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집짓기 시 가로재를 이을 때 지지목의 한가운데를 잇는 이음을 말합니다.
기둥과 연결돼 있는 부분의 이음과 맞춤은 지붕을 떠받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심이음에 마음 심(心) 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일상을 받치고 있는 모든 것 중
사람이 어떤 일을 생각하는 힘, 바로 마음이 가장 중요해서가 아닐까요.

단조롭지만 묘하게 화려한 한옥의 단청 문양 속에
무수한 이음과 맞춤이 숨어 있듯이
우리 삶에도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다양한 이음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쌓여 당신과 우리를 이어줄 것입니다.
그 안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당신의 6월을 기대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과 마음을 들여 알아가는 것

나의 첫 학년부장 이야기

“네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네가 장미꽃을 위해 바친 시간 때문이야.”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유명한 글입니다. 소중한 관계는 시간과 마음을 들여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저는 올해 교직 경력 십수 년 차 중 처음으로 학년부장을 맡았습니다. 연둣빛 나뭇잎으로 싱그러wie 변하는 계절의 흐름도 느낄 새 없이 6월을 맞이합니다. 소중한 만남과 대화가 매일 일어나고 있어서일까요. 참 힘들지만 즐겁습니다.

올해 2월 말 7명 담임교사와 저는 여러 날에 걸쳐 새로운 2학년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학년 교육 목표인 ‘배려’에 따라 학년 교육 활동과 생활 교육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나누었지요. 전문 강사를 모셔 3일간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는 연극 놀이 연수를 2학년 담임교사들이 직접 배우며 서로 알아갔습니다.

3월 2일, 설레는 첫 만남의 날이 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 사안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학생 갈등 중 하나로 SNS에서 상대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중학생은 친구 집단에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단에서 홀로 떨어지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합니다. 수업 태도가 좋은 학생이 갑자기 집중하지 못해 물어보면 친구와의 사이가 떨어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생들은 약해 보이기 싫어서 평소와 다르게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심한 욕을 하기도 합니다. 친구 집단에서도 중심인 친구와의 관계를 놓고 자리 경쟁이 벌어집니다. 어른들에 비해 믿음이 얇은 친구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면 쉽게 멀어지지요. 이번 갈등도 서로 대화로 풀려는 용기를 내지 않고 바로 SNS에 저격 글을 올려 일어났습니다. 또 친구를 편들기 위해 경쟁적으로 다른 학생에게 욕설 글을 쓰고 비방하며 일이 커졌습니다. 이런 일을 바로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화해하고 앞으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배우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담임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자리를 만들어 서로 인정하기, 감정 나누기, 사과하기, 다짐하기 등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은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한 실수에 대해 깨닫고, 상처받은 학생은 자신의 상처를 말할 기회를 갖습니다.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사회적 기술을 익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학생 간 다양한 오해와 갈등은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평화로운 공동체는 어린 왕자가 있는 소행성 B612만큼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중학교는 민주 시민으로서 자질과 공동체 의식을 경험하도록 교육하는 곳입니다. 모두가 존엄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자신이 대접하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배려를 실천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생활 속 민주 시민을 경험하기 위해 학급과 학년에서 지킬 공동체 생활 협약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좁게는 학급이라는 공적인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것부터 넓게는 학년과 학교 공동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사들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제안했습니다. 예컨대 경청하기, 협력하기, 질문하기, 독점하지 않기, 따돌리지 않기 등입니다. 바탕이 되는 교육 목표는 인권 의식과 평화 감수성입니다. 즉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교사들도 모여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것을 약속했습니다.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열정을 잃지 않겠습니다’ 등이 그것입니다.

이윽고 한 달간의 고민 끝에 학년 생활 협약을 완성해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모여 서로 약속을 교환하는 생활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생활 협약식을 했지만 자신들이 만들고 다짐한 생활 약속을 어기는 일이 일어나 힘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교사들이 지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에게 많은 시간과 마음을 들었지만 십여 년간 몸에 밴 언행이 금방 변하기는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학기 초에 비해 마주칠 때마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순간, 수업 시간에 경청하고 같이 힘을 모아 과제를 해결하는 순간, 시간을 들여 관심을 쏟아 달라지는 아이들을 마주하는 순간, 실수를 하면 대화를 통해 서로 인정하고 미안해하는 순간...

그렇습니다. 교사의 길은 고됩니다. 학생들이 작은 새잎에서 물이 점점 차올라 질푸른 잎이 무성한 나무로 커가는 순간은 매일매일의 만남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씩 보이는 성장의 조짐을 잘 살펴보고 교사들이 서로 나누고 여유를 가지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사들이 지치지 않아야겠죠.

오늘도 수업 시간에 힘들어하는 아이와 친구와 오해가 생긴 아이가 교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시간입니다. 첫 학년부장의 하루는 늘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 시간이 헛되지 않기에 오늘도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민아 경기전곡중 교사
교사와 학생은 서로의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감 능력이라 꼽는다. 그렇기에 학교는 학생이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공간이기를,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기를 바란다. 이제는 학교 하면 따뜻함, 안전함, 성장, 민주주의, 생태가 떠오르길 바란다.



올 여름휴가는 특별하게 부락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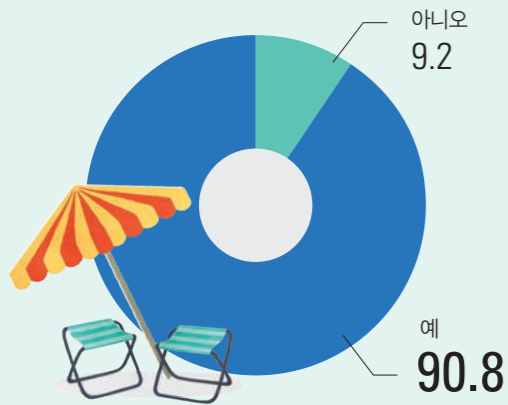
여름휴가, 이 단어 하나에 벌써부터 마음이 들뜨습니다.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상상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여름휴가는 어떤 모습인가요? 여름휴가에 대한 공제회원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기간 2018년 5월 1일 ~ 4일
방법 e-mail을 통한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설문 조사
대상 전국 공제회원 4206명

성별	남성	32.9%
	여성	67.1%
	20대	10.6%
연령	30대	34.5%
	40대	30.0%
	50대	18.6%
	60대 이상	6.3%
직업	교원	59.5%
	비교원	40.5%
	유치원	3.0%
	초등학교	29.2%
	중학교	14.7%
근무하는 직장	고등학교	15.8%
	대학교·병원	28.7%
	교육연수·행정·연구기관	6.3%
	기타	2.3%

(단위: %)

Q. 올해 여름휴가를 갈 예정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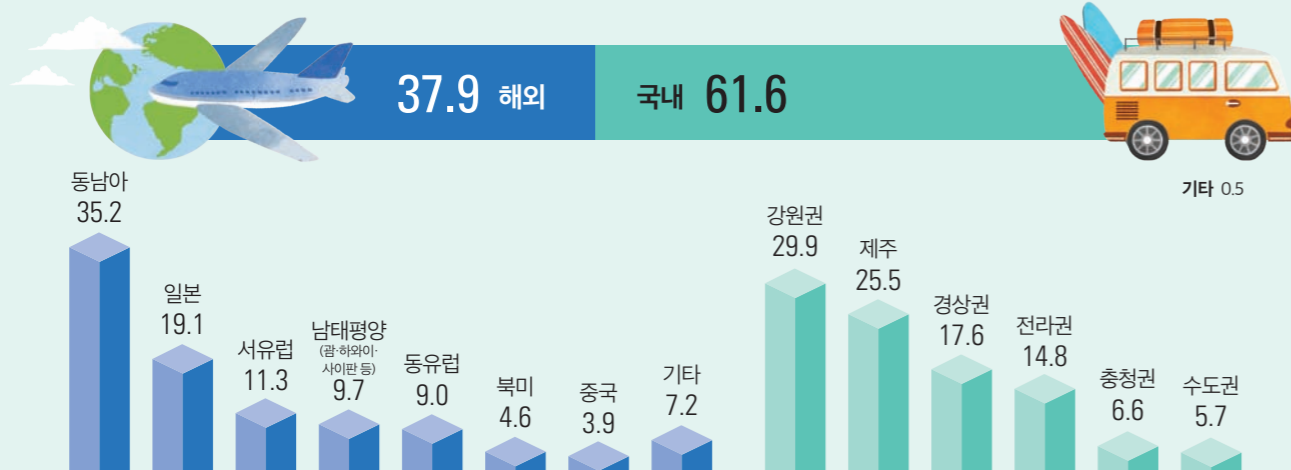


Q. 최근 미디어를 통해 소개된 여행지 중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또는 도시(지역)는 어디입니까? (주관식)



남자 기타 크로아티아 1.8, 미국 1.8, 이탈리아 1.8
여자 기타 하와이 1.9, 러시아 1.9, 미국 1.8

Q. 여름휴가는 어디로 떠날 예정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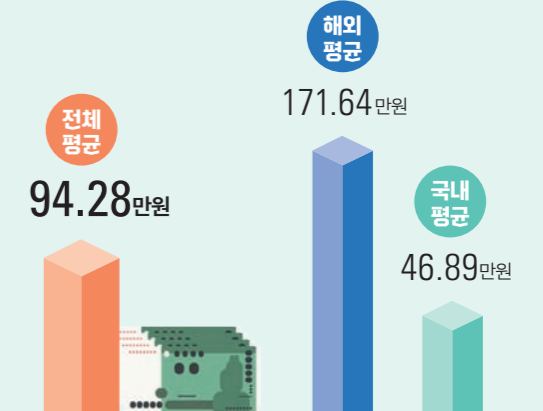


(단위: %)

Q. 올 여름휴가는 며칠 정도 떠날 예정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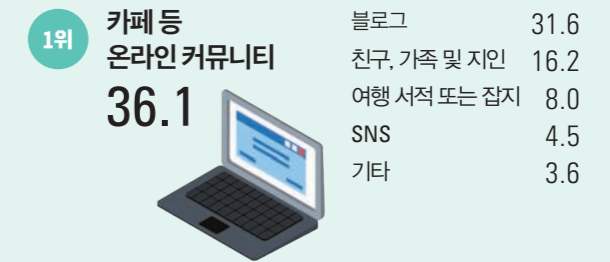
Q. 휴가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1인 기준 / 주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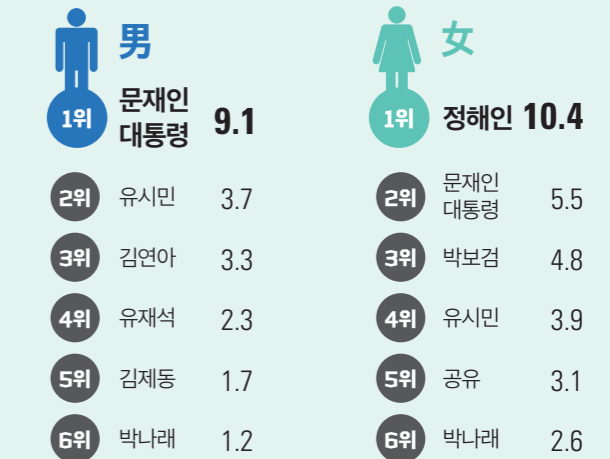
Q. 여행 갈 때 꼭 챙기는 '나만의 아이템'은 무엇입니까? (주관식)



Q. 휴가 또는 여행을 준비하면서 관련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Q. 만약 함께 휴가를 떠나고 싶은 유명인사(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 예술인 등 특정인의 이름)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주관식)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책	2.9	6.7	11.2	11.2	11.2
사진 정보 검색	0.5	0.8	3.9	6.9	8.4
셀카봉	6.1	5.0	2.0	1.0	1.2
선크림	5.8	3.5	3.1	1.7	1.2

여성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정혜인	14.6	14.1	9.7	2.1	1.3
박보검	7.3	6.1	4.6	1.4	0.0

즐거운 상상으로 세상의 길을 열다

김탁훈 회원 |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영상학과 교수

추억은 힘이 세다. 어린 시절, TV 화면을 통해 접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모두의 친구'였다. 같은 이야기를 공유한 친구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공감의 접점을 찾는다. 그렇기에 세계인이 사랑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일은 창작자의 가슴을 뛰게 한다. 김탁훈 교수는 창작자로서 아이디어를 풀어내는 동시에 세상을 놀라게 할 차세대 창작자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기회를 찾아 한걸음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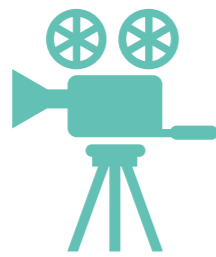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한 청년은 졸업 후 영화를 공부하겠다고 미국으로 떠났다. 누군가는 그 이유를 '꿈을 찾아서' 같은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겠지만, 김탁훈 교수의 대답은 달랐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사진관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 녀석이 사진을 하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사진이 생각보다 재미는 있었어요. 학년이 올라가고 현장 경험도 생겼는데, 세상에 교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이에서 제가 더 잘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뉴욕에서 새로 시작한 영화 공부. 하지만 그는 또 한번 좌절했다. 다행히 커리큘럼 중 하나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수업에서 두각을 보였다. 수업 도중 “너희도 탁훈처럼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교수의 짜릿한 칭찬. 의미 없이 툭 던진 말은 아니었는지, 칭찬은 날개를 달고 다른 교수들에게도 전해졌다. 어쩌면 그 한마디가 현재의 김탁훈 교수를 있게 한 시발점이었는지 모르겠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 재미있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이거라도 해야겠다’라는 절실함이 더 강했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하던 대로 수업 시작 전후에 알아서 기자재를 옮겨놓은 게 교수님 눈에 좋아 보였을 수도 있고요.”

‘열심’이 가져다준 행운은 이어졌다. 학교 창고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찍은 졸업 작품으로 최고작품상을 받은 그에게 미국 굴지의 콘텐츠 기업 MTV가 입사를 제안해온 것. 그렇게 그는 MTV 최초 외국인 직원으로 미국 취업에 성공했다. 당시만 해도 MTV는 미국 내 영향력이 상당한 기업이니만큼 그는 그곳



KIM



TAK H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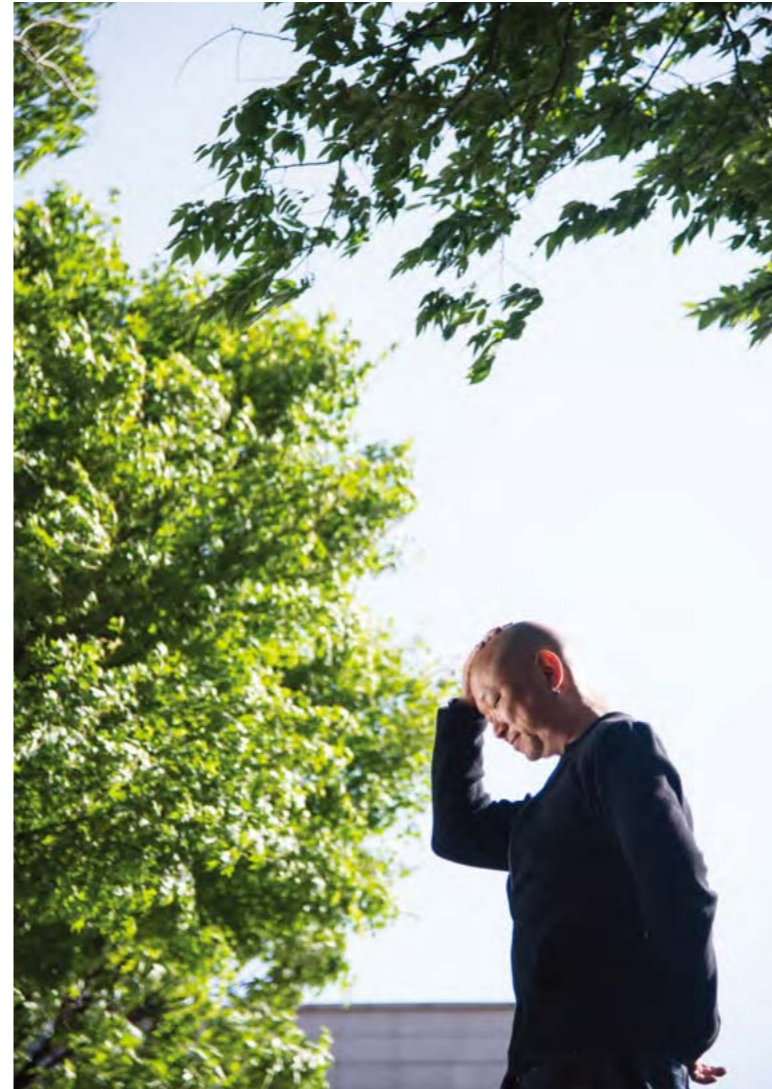
“저를 가르치신 교수님이 퇴직하면서 후임자로 저를 추천하셨더라고요. 때마침 MTV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터라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참 많았거든요. 훗날 교수님께 ‘왜 저를 추천했느냐고 여쭙보니 ‘네가 제일 열심히 했잖아’라고 말씀해주시더군요.’”

에서 애니메이터로 일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명작으로 꼽히는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Tim Burton’s The Nightmare Before Christmas)> 제작에 직접 참여한 분과 같은 팀에 있었어요. 때마침 MTV에서 TV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어서 기회도 좋았죠. 그때까지 외국인이 입사한 전례가 없어 취업 비자 프로세스도 제가 알아보고 회사에 알려줄 정도였어요. 요즘은 한국인 직원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 인생의 드라마

적응하기는 쉽지 않았다. 현지인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정도로 영어 실력이 출중하지도 않았고, 보이지 않는 문화 장벽도 높게만 느껴졌다. 그럴수록 그는 더욱 자기 일에 몰두했고,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그러다 보니 신기하게도 다른 직원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슈퍼바이저(책임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TV 시리즈 <셀러브리티 데스 매치(Celebrity Death Match)>가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그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저를 가르치신 교수님이 퇴직하면서 후임자로 저를 추천하셨더라고요. 때마침 MTV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터라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참 많았거든요. 훗날 교수님께 ‘왜 저를 추천했느냐고 여쭙보니 ‘네가 제일 열심히 했잖아’라고 말씀해주시더군요.’”

직장 생활과 대학 강의 그리고 대학원 공부까지 1인 3역을 해



내며 부지런히 생활한 그는 2007년, 13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이름을 건 스튜디오를 운영해보고 싶었던 까닭이다.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탁툰엔터프라이즈를 설립했다. 마침 정부에서 기술 지주 자회사 형식으로 대학에 출자하면서 학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2015년 첫 방영을 시작해 시즌 2까지 방영한 KBS <갤럭시 키즈>가 바로 탁툰엔터프라이즈의 작품. 최근에는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외국 기업과 공동 제작해 해외 진출의 기반도 다졌다. 현재 2D 애니메이션 <린다의 신기한 여행>을 제작 중이며, 2019년 하반기 KBS에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빅파이버>를 방영할 예정이다.

현장 전문가를 키우다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잔뼈가 굵은 김탁훈 교수에게 교육은 곧 ‘현장’이다. 전문대학원인 첨단영상대학원은 졸업 후 전문가 영역에서 바로 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 제작 경험을 쌓은 학생들이 입학하는 경우도 많다. “애니메이션 한 작품을 만들려면 상당한 자본을 투입해야 합니다. 투자자나 창작자나 리스크를 숙명적으로 지고 가는 산업이죠. 이런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이론에 근거한 작가 정신만 강조할 수는 없어요. 업계는 지금도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업계를 잘 알고 대비하도록 학생들을 가르쳐야죠. 사실 저도 2008년 탁툰엔터프라이즈를 갖 설립했을 때는 국내 사정을 잘 몰라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어요. 5~6년 고생하고 나니 겨우 길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수십억에 달하는 투자금을 선뜻 내놓는 독지가는 없다. TV 시리즈의 경우 최소 50회 이상을 제작하기에 투자자를 설득할 때 강력한 기획서와 사업 계획을 함께 세울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렇기에 그는 더욱더 자신이 업계에 깊이 관여하며 ‘감’과 ‘촉’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프로듀싱 전반에 관해 알려줍니다. 국내에 알려진 콘텐츠 기업에 입사하는 학생도 많지만, 창업 비율도 꽤 높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죠. 그렇기에 제가 업계를 잘 모르면 안 돼요. 정책이나 시장 환경도 알아야 하고요. 학생들의 재능에 따라 진로와 관련한 화두를 던지기도 하는데, 업계에서 계속 일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과거 스승이 자신에게 기회를 주었듯, 그도 학생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굴하며 기회를 주기도 한다. 이보혜 작가의 <뽀족뽀족 포크 가족>이 대표적. 학생의 작품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호평을 얻었다.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한국 애니메이션

김택훈 교수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장래가 밝다고 전망한다. 단순히 국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라서 하는 말이 아닌, 국내 콘텐츠가 지닌 경쟁력을 놓고 하는 이야기다. 실제로 <뽀로로> <구름빵> <출동 슈퍼윙스> 등 국내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고, 그의 전공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역시 제작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한다. 스톱모션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캐릭터가 현실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매력을 지닌다. 게다가 특유의 생생한 질감은 아무리 정교한 컴퓨터 그래픽도 구현할 수 없다. 손으로 일일이 동작을 새로 잡아야 하기에 제작 기간이나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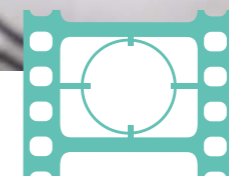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만한 수준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어요. 미국, 일본 다음이 바로 한국이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도 아직 국제적 인지도를 지닌 성공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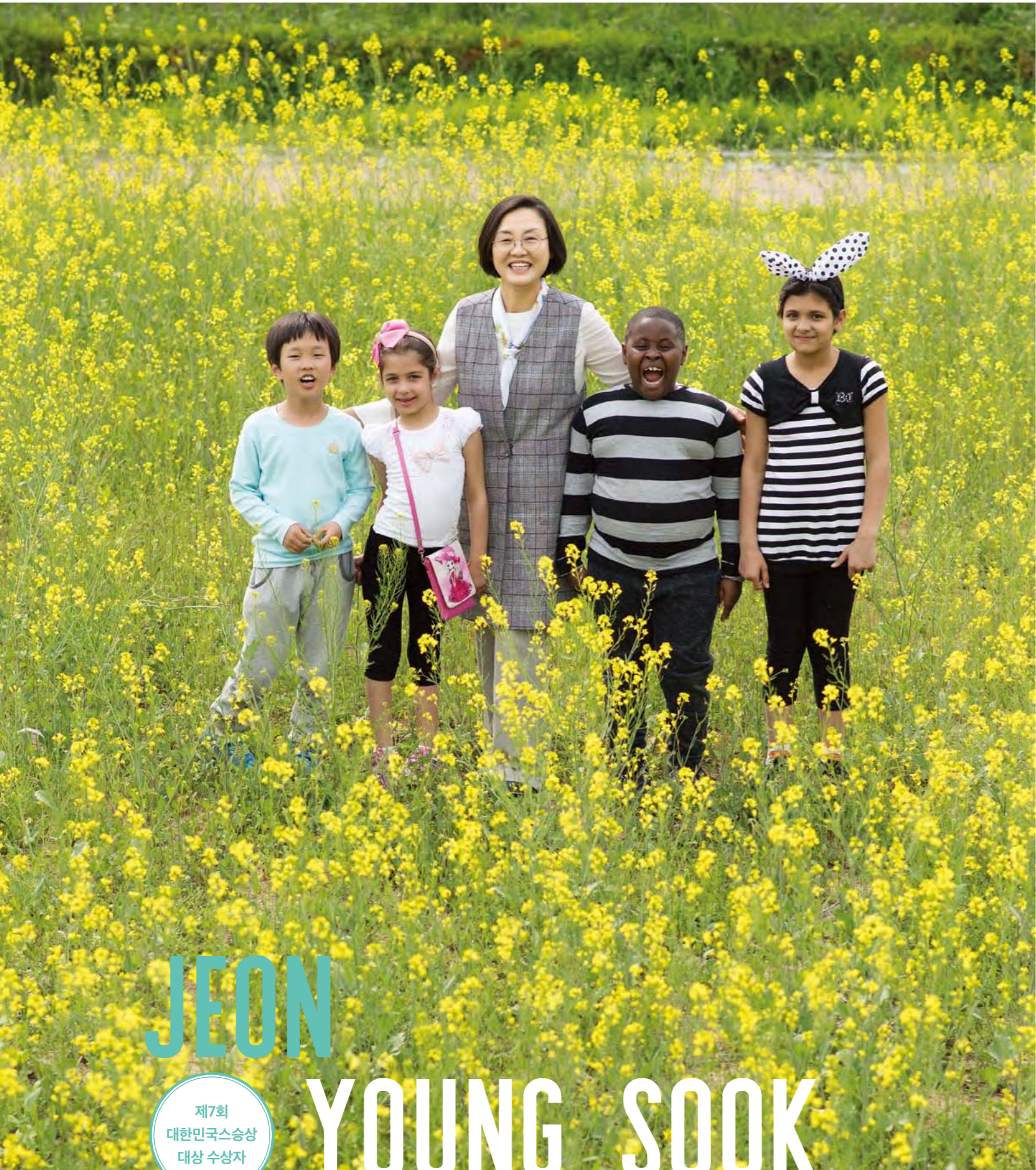
는 없지만 가능성은 보여요. 이미 국내에서 활동하는 좋은 창작 집단이 많이 있고요. 이들이 모여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나면 머지않아 전 세계에 방영될 멋진 작품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바람은 그에게도 있다. 장기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면 글로벌 시장에 내세울 만한 성공 사례가 있어야 한다는 것. 김택훈 교수는 장기적으로 종합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제대로 구성해보고자 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지닌 창작자들이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작품을 만들고 상업화할 기회를 얻기 바라면서.

“얼마 전 일본 도쿄에 있는 VR파크에 갔어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닿는 곳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애니메이션 <신세기 에반게리온>에 등장한 에반게리온을 타는 거였어요.”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매개는 결국 콘텐츠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는 김택훈 교수. 새로운 한류가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나오리라는 전망이 실현될 수 있을까? “중앙대와 탁툰엔터프라이즈가 좋은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콘텐츠 허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현실화하기 위해, 그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최선을 다해 두박두박 새로운 길을 열어가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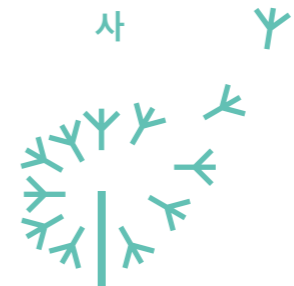
JEON

제7회
대한민국스승상
대상 수상자

YOUNG SOOK

희망의 씨앗, 오랜 시간 동안 품다

다문화 가정의 행복지킴이
전영숙 회원 | 경북 칠곡 왜관초 교사



이방인, 이제는 거리에서 만나도 낯설지 않은 세상이다. 그러나 시각적 익숙함이 곧 정서적 익숙함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점점 높아지는 다문화 가정의 비율에서 한국 적응을 어려워하는 가정의 수도 늘어나는 것이 현실. 그런 그들을 위해 오랜 세월을 한결같이 희망의 등불로 노력해온 인물이 있다. 전영숙 경북 칠곡 왜관초 교사가 걸어온 길이 궁극해 경북 칠곡으로 향했다.

아프리카에서 얻은 깨달음

경북 칠곡 왜관초에 들어서자 이종구 교장이 반겼다. 아직 수업이 끝나지 않은 전영숙 교사를 대신해 환영 인사를 전한 이종구 교장은 제일 먼저 전영숙 교사의 '제7회 대한민국스승상' 대상 수상에 대한 기쁨과 감동을 감추지 않았다.

“전영숙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전입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하지만 전영숙 선생님의 다문화 사업 내용을 알게 되면서 많이 놀라고 감동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헌신해온 전 선생님의 모습에서 제가 느낀 것은 ‘마음에서 우리나라 오지 않았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확신이었지요. 실제로 매사에 열성적이고 부지런한 전영숙 선생님의 모습은 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구 교장은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을 우리 학교에 모시게 된 것을 학생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한다는 소감을 덧붙였다.

오늘 만난 전영숙 교사는 제7회 대한민국스승상 대상 수상이라는 큰 영예를 차지했지만 학생, 학부모는 물론 동료 교사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신임과 사랑을 받아온 인물이다. 그런 그를 이야기할 때 모두가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건 바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헌신과 노력. 오랜 기간 퇴근 후 지역 아동센터로 달려가 학업부진아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말에는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가정 부모의 한글 학습을 도우면서 국적과 자격증 취득을 도와온 그. 어렵고 힘든 점은 없는지 살살이 살피면서 가정방문에 상담까지 자처해온 전영숙 교사는 다문화가정이 많은 칠곡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다.

그런 전영숙 교사가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날카롭고도 두려운 기억의 한 자락 때문이다.

“19년 전쯤 친구들과 함께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 등지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행에 함께하지 못한 남편에 대한 미안함



전영숙 교사의 미담은 굳이 공적서나 본인의 입을 빌리지 않아도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다. 학업부진과 언어 문제로 적응하지 못하던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권하니 학업 성취도가 높아졌고, 학교생활을 즐거워하기 시작했다. 부모들 역시 전 교사에게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어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언제 떠날까 고민하던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게 되었다.



때문에 선물을 사려고 탄자니아에 있는 민속 공예품점에 갔어요. 한창 선물을 고르는데 한 흑인이 다가와 한국말로 ‘한국에서 왔냐’고 말을 건네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반가워 ‘그렇다. 한국말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대뜸 ‘첫마디가 욕이었어요. ‘한국? 내가 한국 사람은 다 죽이고 싶다. 한국에 일하러 갔는데 월급도 못 받고 몸만 다쳐서 왔다’라며 욕을 퍼붓더라고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바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한다는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서만 들었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던 전영숙 교사에게 그 일은 크나큰 충격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에 대한 피해는 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다문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한국어강사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이 무렵이다.

다문화 가정의 구원자에서 나라를 구한 히어로까지

전영숙 교사는 수업을 마치고 학교를 나서자마자 또 다른 곳으로 향한다. 그가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곳은 그루터기지역아동센터. 김선태 그루터기지역아동센터장은 전영숙 교사를 두고 ‘연구 대상’이라며 웃음 지었다. 이는 그루터기지역아동센터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다문화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부모까지 포용해온 그를 보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놀라움과 감탄에서 비롯된 궁금증이었다. “전영숙 선생님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2011년도입니다. 기지촌이었던 이 지역은 유흥 문화 영향권에 있는 동네로 낙후된 경제 탓에 아이들은 거의 방치된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학업부진아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오셨어요. 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도 되느냐고요.”

현재 그루터기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즐거운 아동센터로 자리 잡기까지 전영숙 교사의 도움이 컸다며 김선태 센터장은 감사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전영숙 교사의 미담은 굳이 공적서나 본인의 입을 빌리지 않아도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다. 학업부진과 언어 문제로 적응하지 못하던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권하니 학업 성취도가 높아졌고, 학교생활을 즐거워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바뀌니 부모도 변하기 시작했다. 전영숙 교사가 직접 가정방문을 해 어려운 점은 없는지 묻고 살피자 마음을 터놓기 시작한 것. 부모들 역시 전 교사에게 한국어를 배우



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어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언제 떠날까 고민하던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게 되었다. 김선태 센터장은 이를 두고 “전영숙 선생님이 한 가정을 구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인류사를 뒤돌아보면 악의의 바이러스는 언제나 강했다. 전쟁과 혐오, 증오의 균은 세상을 악으로 몰들였지만 선의 힘 역시 강한 것은 마찬가지다. 희생과 배려, 헌신의 힘은 악에 대항하는 강력한 대척점으로 세상을 밝게 몰들이기 때문이다.

한국 생활 6년 차, 베트남에서 온 응웬 두이 권 씨가 그랬다. 한국에서 열심히 돈을 모은 뒤 베트남에 돌아가 작은 가게를 차리고 싶은 꿈을 꾸고 있었지만 한국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열심히 일하고 싶었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니 힘겹기만 했다. 그러던 차에 만난 전영숙 교사는 그에게 한 줄기 빛이자 희망이었다. “처음에 한국에 와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별로라고 생각했고, 처음 전영숙 선생님을 만났을 때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한국어를 배우면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공부를 가르쳐주시고 밥도 주시고 진심으로 절 생각하고 챙겨주신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국말이 느니까 회사 생활도 한결 편해지고 상사나 동료들과도 잘 지내게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인 아내를 만나 아들을 낳고 사는 그에게 전영숙 교사는 선뜻 자신이 사놓은 작은 아파트까지 내주었다. “곰팡이가 핀 반지하 셋방에서 어떻게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겠느냐”며 웃는 전영숙 교사는 말 그대로 마음을



올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스승인 것이다.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주민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선생님께 받은 것을 되돌려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자라는 베트남 아이들에게 제가 아는 것을 모두 전해줄 겁니다.”
 전영숙 교사를 ‘엄마’라고 부르는 파키스탄인 알리 역시 한국은 푸근하고 행복한, 오래오래 머무르고 싶은 곳으로 바뀐 지 오래다.

아이의 미래를 사랑으로 책임지다

무엇이 이토록 그를 세상에 헌신하게 하는지가 궁금했다.
 “법조인을 꿈꾸다가 건강 문제로 진로를 교사로 바꿔서일까요. 처음에는 그저 직업인으로서의 교사였어요. 그러다가 첫 아이를 낳은 뒤 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 됐습니다. 아이란 더없이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은 거죠. 교사인 남편과도 늘 이야기했어요. ‘부부 교사로서 혜택도 많이 받고 우리 아들들도 잘 키웠으니 더 나이 들면 나라를 위해 봉사하자고요.’
 전영숙 교사는 자신이 조금만 힘을 보태면 아이들이 변화하고 가정이 바뀌는 모습이 보람이고 즐거움이었다고 말했다. 교사 자격증 하나로 18개국이라는 세상을 만나며 다양한 문화를 접한 것이 행복이라고도 말했다. 얼굴 한가득 미소를 담고, 스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의 모습에서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 진심이 아니지 않은 게 없다.

“세계는 꿈이 있어요. 재단을 만들어 다문화 자녀 장학금을 마련하고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고 싶어요. 민간 외교관으로서 힘이 닿는 한 이 일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제가 나라에서 받은 혜택에 대해 보답하고자 합니다.”
 전영숙 교사는 아이를 만나면 늘 그 아이의 20년 후를 생각한다고 했다. 아이의 문제를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고민한다고. 이처럼 그의 교직 철학에 대한 신념은 강했다.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 미래를 사랑으로 책임질 것이며, 아이들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면 교사를 그만두어야지요. 가르친 아이 중에서 사회면 범죄자나 학업부진아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라에서 제게 교사를 하라고 한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하는 도중 그의 모습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제7회 대한민국스승상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전영숙 교사가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조심스러운 당부의 말을 전한다.
 “다문화 가정을 우리와 같은 한국인으로 봐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다문화에 대한 좋지 않은 뉴스로 편견이 생길 수 있지만 행복을 찾아 한국에 온 다문화 가정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한국인과 같은 시선으로 동등하게 대해주시길 바라요.”
 반 아이들에게 ‘착한 우리 선생님’으로 불리는 전영숙 교사. 그의 모든 출발은 바로 아이들을 향한 극진한 사랑, 그것이였다.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 미래를 사랑으로 책임질 것이며, 아이들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면 교사를 그만두어야지요. 가르친 아이 중에서 사회면 범죄자나 학업부진아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라에서 제게 교사를 하라고 한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 제주에서 만나다

제주도에서 만난 신혼부부는 너무나도 풋풋했다. 지난가을,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아내는 경기 오산의 초등학교에, 남편은 제주의 대학교에 재직 중인 터라 주말부부도 아닌 월말부부로서 지내는 삶이 마치 연애 중인 것처럼 보인 것. 연애와 결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묻자 고개를 갸웃거린 끝에 “둘만의 보금자리가 생긴 것”을 꼽을 만큼 두 사람은 연애 감정 가득한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날을 어제인 듯 생생하게 기억했다. 2013년, 임서현 교수는 막 임용시험을 마쳤고, 김민태 교수는 동료와 함께 제주를 찾은 때다. 제주에 있는 수많은 게스트하우스 중 하필 그곳에서, 눈발처럼 수많은 겨울날 중 하필 그날, 두 사람은 제주 어느 게스트하우스의 탁자 앞에 마주 앉았고, 결혼에 이르는 길고 깊은 운명의 실타래를 함께 감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서로에게 빠져든 것은 아니었다. 임서현 교사의 친구는 “앞에 앉은 남자가 널 자꾸 쳐다본다”라고 속삭였지만 정작 앞에 앉은 남자는 아무 기억이 없었던 것.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제주를 떠난 뒤, 서울에서였다. 블로그를 통해 연락하자는 인사에, 남자는 하지도 않던 블로그를 새롭게 만들었고, 댓글과 쪽지를 통해 안부를 주고받으며 본격적인 만남을 시작했다. 그러고는 세 번째 얼굴을 본 날, 남자는 “우리, 사귀어보자”라고 고백했고, 여자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느낌이 좋았다”라고 똑같이 이야기했다. 특히 임서현 교수는 “서투게 데이트하는 모습이 요즘 남자 같지 않았다. 선해 보이는 이미지가 참 좋았다”라며 미소 지었다. “일부러 서툰 척한 거다”라는 김민태 교수의 말에 자리에 모인 모든 이가 빵 터졌지만 말이다. 그렇게 4년의



‘유연천리래상회(有緣天里來相會)’ 인연이 있으면 천리 밖에서도 만난다라는 이 말은 임서현 교사와 김민태 교수 부부에게 더없이 잘 어울리는 말이다. 각각 경기와 서울에서 자라고 공부해 그곳에서 터를 잡았지만 엉뚱하게도 제주에서 만나 결혼을 하고 다시 부부 교원으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게 됐으니 말이다. 두 사람의 삶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소중한 곳 제주, 그곳에서 알콩달콩 새내기 부부를 만났다.

첫 만남의 날실, 새 출발의 씨실
“부부 교직원공제회원으로 새 삶을 시작합니다”

임서현 경기 오산대원초 교사 & 김민태 제주한라대 방사선과 교수



열에 끝에 2017년 가을, 두 사람은 축복 속에 매일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기로 맹세했다.

제주에서 다시 하는 프리포즈

두 사람에게 제주는 그동안 솔하게 방문한 곳이지만, 이번 1박 2일 일정은 그중에도 매우 특별하다. “그간 매년 제주에 왔는데 꽃이 핀 계절에 온 건 처음이에요. 또 그동안에는 남편이 교수 면접을 보거나 합격하고 난 뒤 집을 구하러 올 때 왔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압박이 있었거든요. 이번 여행은 가볍고 여유롭고 무엇보다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남편과 처음 즐기는 제주 여행이라 기대가 큼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제주 여행이 시작됐다. 오늘 여행은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발길 가는 대로, 시선이 머무는 대로 멈추며 느껴보자는 데 모든 이의 의견이 일치했다. 낮게 깔린 구름이 특별한 운치를 더하는 외중에 가장 먼저 자동차가 멈춰선 곳은 제주

시 조천읍 와흘리에 위치한 전원마을 입구다. 딱히 목적인 곳은 아니지만 화려하게 철쭉이 피어난, 뒤늦게 알고 보니 결혼사진 촬영지로 인기가 높은 곳이란 다. 결혼 전, 스페인의 예쁜 마을 프리힐리아에서 프리포즈를 했다지만 무뎠고 평이하게 “결혼해줄래?”라는 ‘말만’ 들었다는 아내의 조금은 뽀로통한 토로에 김민태 교수가 한쪽 무릎을 꿇었다. 꽃길 사이에서 다시 쓰는 프리포즈를 하기 위해 증인과 사진작가를 대동한, 신부에게는 그야말로 평생 잊지 못할 프리포즈다. 임서현 교사의 얼굴에 발갛게 피어난 홍조가 제주에 핀 그 어떤 꽃보다 눈부시고 어여쁘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서귀포 굴 농장에서 맛본 새콤달콤한 감하굴 못지않다.

오감을 자극하는 제주에서

제주에 달리는 것만으로도 오감이 충족되는 섬이다. 창밖으로 내놓은 손끝을 스치는 바다를 품은



“그간 매년 제주에 왔는데 꽃이 핀 계절에 온 건 처음이에요. 또 그동안에는 남편이 교수 면접을 보거나 합격하고 난 뒤 집을 구하러 올 때 왔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압박이 있었거든요. 이번 여행은 가볍고 여유롭고 무엇보다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남편과 처음 즐기는 제주 여행이라 기대가 큼니다.”



바람, 불쭉불쭉 선물처럼 코끝에 찾아드는 꽃과 들의 향기, 수평선과 숲 자락이 번갈아가며 실 새 없이 시야를 자극하니 그 자체로도 치유, 평화다.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플레이스 캠프’는 그래서 더욱 독특하게 다가온다. 자연 친화적인 제주에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많은 이에게 사랑받는 곳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가게가 빼곡히 들어서 있고, 주말이면 플리마켓도 열린다. 부부와 함께 일행 모두가 나란히 앉아 카페 도렐에서 시그너처 음료 너티클라우드 커피를 마셨다. 땅콩 맛 크림을 듬뿍 올린 목직환 커피가 입안에 새로운 감흥을 안겨주니 모두가 완기를 되찾았다. 다양한 생활 소품이 가득한 멀티숍에서의 아이쇼핑은 아직 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부부가 보여주는 또 다른 유쾌함이다. 모두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한 곳을 또 하나 발견했다. 구좌읍 하도리에 위치한 ‘멜트캐드’. 얼핏 외국어처럼 들리는 이 이름은 ‘멜(멸치)이 드나드는 것



담'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 전통 어업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는 이곳은 이제 제주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귀한 곳이다. 신발과 양말을 벗고 성큼성큼 갯담에 들어가는 부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번갈아가며 앞에서 끌고 뒤에서 따르는 모습이 삶의 동반자로서 두 사람이 앞으로 걸어갈 지표표를 보여 주는 것 같아 흐뭇하기 짝이 없다. 다정다감한 김민태 교수와 살뜰하게 남편을 챙기는 임서현 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인연'이라는 두 글자를 다시금 떠올려본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모두의 얼굴에서 광대가 한껏 솟아오른다. 제주 맛집으로 손꼽히는 김소봉 셰프의 '소봉식당'에 정갈한 식사가 준비돼 있기 때문. 좋은 쌀로 가마솥에서 지은 밥과 메인 요리로 구성된 정갈한 일본 가정식이 눈앞에 한상 차려지자 하루의 피곤이 스르르 녹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즐기는 맛있는 식사. 하루의 마무리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교원 부부로서의 새 출발

결혼식을 올리면서 김민태 교수는 딱 하나, "아내 말을 잘 듣자!"라는 다짐을 했다. 아내 역시 결혼에 임하면서 "내조를 잘하자!"라고 결심했다. 휴일을 내기도 힘들 만큼 바쁜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다 결혼 직후 대학교수로 새롭게 출발하는 기쁨을 맛보

면서 아내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복덩이가 들어왔다"라는 말이었고, 남편은 장모님 앞에 더 당당히 어깨를 활짝 펼 수 있는 사위가 되었다. 결혼과 함께 서로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생기다 보니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제주가 두 사람에게 더욱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당연지사.

"같은 교원 부부로서 이제는 '따로 또 같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교육은 물론 인성까지 빚어주는 책임감을 안고 있고, 저는 학생들에게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소양과 지식을 길러주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죠. 다른 듯 같은, 같은 듯 다른 일을 하지만 교단에 선다는 공통분모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삶의 동반자로서의 의미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동행'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제주에서 만나고 교원 부부로 새 출발하는 우리에게 더없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였어요. 1박 2일 동안 특별한 경험과 행복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비록 날씨는 변덕스러웠지만 처음 남편과 함께한 따뜻한 제주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해사하게 웃는 김민태 교수와 임서현 교사. 그들의 미소에는 교육자로서 갖는 책임감과 부부로서 갖는 공동체 의식이 뜨겁고 부드럽게 뒤섞여 있었다.



'아름다운 동행' 참가자 모집
 <The-K 매거진>에서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가족, 친구, 제자 등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고 싶다면 아래 메일로 성함, 연락처, 참여 인원 및 관계와 참가 이유를 보내주세요.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The-K 매거진>이 함께합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jsh@swadcom.co.kr

부부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소봉식당
 소봉식당은 김소봉 셰프가 운영하는 일본 가정식 식당이다. 차지고 윤기가 도드라지는 충청도 삼광미를 갖 도정해 밥을 짓는데, 조리부터 위생, 서빙까지 손님이 집밥처럼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지향해 관광지임에도 많은 단골 고객이 찾는다. 명란튀김, 우니에그 등 다른 곳에서는 맛보기 힘든 메뉴가 많다.
 ①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로 191
 ② 070-8147-1418(매주 수요일 휴무)



멜튼개
 멜튼개는 하도리 굴동에 위치한 갯담이다. 갯담이란 해안가에 돌을 쌓아놓고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업 방식을 일컫는 말로 원담이라고도 부른다. 용암이 흐르는 과정에서 크게 부풀어 오른 바윗덩어리와 빠져 나가지 못한 채 가두어진 바닷물, 이끼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 이곳은 이제 제주에서도 거의 사라진 귀한 명소다.
 ① 제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마을 토끼섬 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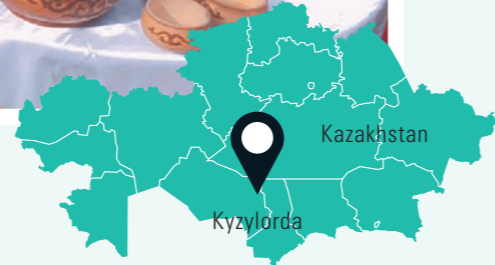
플레이스 캠프
 서귀포에 위치한 복합 문화 공간이다. 건물 여러 채가 한곳에 오밀조밀 모여 있는데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부터 펍, 카페, 멀티숍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주말에는 공연이나 골목 시장 플라마켓 등이 열려 가족 단위 고객이 많이 몰리며, 특히 카페 도넛에서 파는 땅콩크림 커피 너티클라우디는 꼭 한번 마셔볼 만하다.
 ①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동류암로 20
 ② 064-766-3000

| 1박 2일의 여행을 마치고 |



김민태 교수
 촬영과 인터뷰도 함께 했지만 좋은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는 것 같아 정말 좋았습니다. 멜튼개에서 아내와 함께 바닷물에 발을 담근 기억도 너무나 즐거웠고, 매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주는 아내를 만나게 해준 곳이자 제게 두 번째 삶을 열어준 곳이어서 남달리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색다른 방식으로 제주를 추억할 수 있게 만들어준 아내와 한국교직원공제회 측에 감사드립니다. 아내는 때로는 잔 다르크처럼 용감하고, 때로는 녹아버릴 듯 애교가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처럼 늘 그 자리에 있어주길 바라면서 저 또한 좋은 가정으로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임서현 교사
 겨울과는 다른 제주도의 모습을 만날 수 있어 정말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올해부터 남편이 제주에서 일을 시작했기에 제주를 여행지가 아닌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논문을 쓰는 시기에 밤새워 원고를 마치고 이번 여행에 동행해준 남편에게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내가 더 잘하게"라고 말하고 싶어요. 젊은 부부지만 늘 믿고 지켜봐주시는 시부모님과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친정 부모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다양성의 나라, 카자흐스탄

여기는 카자흐스탄입니다

많은 선생님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어 교원은 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을 가리킵니다. 고등학생 때 처음 한국어 교원의 꿈을 갖게 된 이후 졸업 해외에서, 특히 한국어 교육의 불모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학습자를 가르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과 한국어학당에서의 임시 강사 활동을 병행하던 중 국립국제교육원의 해외 파견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2017년 여름 졸업과 동시에 카자흐스탄으로 파견을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파견 국가로 카자흐스탄을 선택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파견 국가 중 한국에서 가장 멀고 한국 사람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 그래서 한국어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곳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파견 교원으로 선발되자 무지로 인한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다행히 파견 전 사전 연수 기간에 카자흐스탄에서 온 선생님과의 현지어 수업을 통해 카자흐스탄에 대해 조금이나마 익힐 수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유목민의 땅이자 다양성의 나라

카자흐스탄의 이름은 고대 터키어로 유목민을 의미하는 'Qaz'와 페르시아어로 땅을 의미하는 'Stan'에서 유래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유목민의 땅'을 의미합니다.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나라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 국가로 북쪽으로는 러시아, 동쪽으로는 중국, 남쪽으로는 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내륙에 위치한 만큼 겨울에는 영하 40°C, 여름에는 영상 40°C의 엄청난 기온을 보이기도 합니다. 2학기를 시작한 1월 말에는 10분 남짓한 짧은 출근길에도 머리가 하얗게 세어버리곤 했는데, 2학기기가 끝나가는 지금 5월에는 반팔 옷을 입고도 덥습니다. 교실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종종 참새가 찾아들곤 합니다.

파견을 오기 전에는 카자흐스탄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을 믿고, 구소련 국가 중 하나여서 막연히 폐쇄적일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한 카자흐스탄은 흔히 다문화 국가의 대표 국가로 여겨지는 미국, 호주보다 훨씬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사실 카자흐스탄은 약 120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 국어는 카자흐어이지만 공용어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다언어 국가이자 국교 없이 이슬람교, 러시아정교 등 다양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야말로 다양성의 나라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새해 축제입니다. 올해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새해를 보냈는데, 독특하게도 난생처음 세 번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양력 새해인 1월 1일에는 카자흐스탄의 가장 큰 도시인 알마티에서 새해 연휴를 즐겼습니다. 알마티에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스키장이자 해발 3200m를 자랑하는 침블락 스키장이 있어 스키를 타며 겨울방학을 만끽했습니다. 음력 새해인 설날에는 설날 특별 문화 수업을 하며 보냈습니다. 한국의 설날 소개 영상과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식 영상을 보며 그 안에 담긴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윷놀이 등



김이연
국립국제교육원 해외 파견 교사
교육의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한국어 교육의 세계적 확산을 꿈꾼다. 현재 파견된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습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고자 한다.





한국 전통 놀이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답게 많은 동료 선생님과 학생이 저에게 한국인의 새해를 축하한다며 덕담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봄이 시작되는 날인 3월 21일은 이슬람 문화권의 새해 첫날이자 페르시아의 새해인 '나우르즈'도 경험했습니다. 나우르즈는 카자흐스탄의 가장 큰 명절로 광장에 수십 개의 유르트(유목민의 전통 이동 가옥)를 설치하고 축제를 시작합니다. 저도 학생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전통에 따라 파견 학교를 상징하는 유르트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다른 유르트에 손님으로 방문하며 행사를 즐겼습니다. 무대에서는 각종 공연이 펼쳐졌는데, 그중 다양한 민족의 전통 무용 공연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려인의 전통 부채춤 공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카자흐스탄은 다양한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특히 춤과 노래,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흥을 사랑하는 한국인과 닮아 더욱 친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도 번지는 한국 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

제가 파견된 크질오르다 국립대학교는 카자흐스탄의 중남부 도시인 크질오르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 시기에 옮겨진 원동 고려인 사범대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1991년 카자흐스탄 최초로 한국어 전공 강좌가 개설된 뒤 폐과되었다가 2013년 영어-한국어 전공으로 다시 개설되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로 학생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담당 교원은 한국에서 파견된 한국인 교원 2명뿐입니다. 교재도 상당히 부족해 여러 명의 학생이 한 교재를 같이 보거나 복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위해 필요한 모든 비품은 교원이 자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교실 내 인터넷은 자주 끊겨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냉방 시설도 열악합니다. 지금은 상당 부분 적응했지만 칸막이가 없



는 옛 소련식 화장실만큼은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아 학교 화장실을 사용한 적은 손에 꼽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어입니다. 교직원 대부분이 영어를 구사하지 못해 행정 업무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열심히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도 학장과는 간단한 인사 정도밖에 나누지 못합니다.

이 같은 열악한 여건에도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저 또한 열정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한국어로 가르쳐야 한다고 배우고 믿어왔는데, 이곳에서는 영어로 한국어를 가르치기를 요구해 처음에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곳의 특수성을 인지했고, 학습자 수준에 따라 영어와 한국어를 혼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의 영어 수준이 높고, 어릴 때부터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를 습득한 다중 언어 화자인지라 외국어 학습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지난 2월에는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에 출전해 장려상을 받았고, 최근에는 공모전에 출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배우는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영사관에서 주관하는 한국 문화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 우리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모두 모여 한국 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자체적으로 문화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년은 참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이곳에 온 게 엇그제 같은데 적응할 만하니 벌써 2학기가 끝나가고 1년의 파견 활동 기간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다가 올 여름방학에는 중앙아시아의 다양한 학회에 참석해 이곳에서의 한국어 교육 성과를 알리고 더 나은 한국어 교육을 위한 조언을 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발전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이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습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교원 해외 파견 모집**

- 모집 기간** : 2018년 5월 ~ 6월
 - 모집 인원** : 16개국 70여 명
 - 파견 국가** : 네팔, 브라질, 페루,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피지 등
 - 파견 시기** : 2018년 8월 또는 12월 (12개월 이내)
 - 모집 분야** : 수학, 과학, ICT, 초등, 한국어, 퇴직자문관
 - 지원 자격** : 해당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
 - 활동 내용** : 파견국 학교에서 정규 수업 및 기타 교육 활동
 - 지원 사항** : 체재비 및 지원금(교원 350만원/월, 퇴직자문관 250만원/월), 왕복항공권 보험, 건강검진 등
 - 문의처**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02-3668-1424~5
- * 기타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niied.go.kr) 공지 사항 참조

당신 주머니에는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작은 행복이 있는가?

소확행, 트렌드를 넘어 일상으로

작지만 완벽한 행복, 기질 수 있을까

지난 10년간 우리는 행복을 불러온다는 온갖 마법의 단어를 외쳐댔다. 옴로(YOLO), 인생은 한 번 뿐이라면서 세계 각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휘계(Hygge), 최소한의 사람과 소박한 기쁨을 즐기는 북유럽식 모임도 만들어냈다. 케렌시아(Querencia), 바쁜 삶 속에서 잠시 쉽표를 찍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나서 깨달았다. 소확행(小確幸), 작지만 확실한 나만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한국인은 일을 해도 너무 열심히 한다. tvN <윤식당 2>가 차려놓은 스페인의 식당에서 한 어머니가 딸에게 묻는다. “한국이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고?” 딸이 답한다. “그래, 한국이 1등이래. 끔찍해.” 그러곤 인도에서 만난 한국인이 알려준 대기업 이야기를 한다. “거기에선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해. 그것도 평생 동안.” 이 대화를 들은 촬영 스태프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실소를 흘렸을지 모르겠다. 그들은 ‘여행지에서 식당 주인으로 살아가기’라는 행복을 보여주기 위해, 저 먼 나라에 가서 혹독한 촬영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을 테니. 한국인의 근면함은 이렇게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고 있다. 그렇게 혹독하게 자신을 소진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수 있다는 사실을. 2000년대 들어서자 행복을 위해 투자하기 시작했다. 해외여행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수입 명품과 고가의 웰빙 제품 등에 대한 과시성 소비가 불을 이루었다. 인터넷과 SNS는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너희 이런 거 해 봤어?”라며 경쟁적으로 행복을 전시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일하느라 지치고, 돌고 나서 더 지친다. 한국인은 놀아도 너무 열심히 논다.

10년의 행복 실험 끝에 찾은 ‘소확행’

이런 가운데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1986년 에세이에 쓴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원래 이 말은 1980년대 버블 경제 붕괴를 겪은 일본인들이 과도한 소비를 자제하고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게 된 상황을 담았다. 사실 당시 일본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21세기 대만 젊은이들의 트렌드 용어가 되며 부활했다. 연약한 ‘딸기족’이라 불리는 그들은 높은 부동산 가격, 실업률, 저임금 속에서 미래의 큰 욕심을 버리고 ‘작지만 확실한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말이 한국인들에게도 공감을 얻은 것이다. 소확행은 지난 10년의 행복 실험을 통해 찾아낸 어떤 결론이다. 우리는 웰빙을 이야기하며 북유럽 라이프스타일을 따라가보려고 했다. 패스트푸드, 패스트패션, 요란한 인테리어를 버리고 좋은 환경과 재료를 중심으로 한 건강한 삶을 추구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유지하는 데 결코 적지 않은 시간, 돈,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처럼 시골 생활을 하며 조용하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갓 딴 채소로 요리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지만 막상 귀농에 뛰어들어 사람들의 고충을 전해 들으면, 그 역시 한국 사회에서는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우리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 깨달았다. 삶의 축을 크게 움직이지 않고 현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작은 행복의 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신경 끄기의 기술> <포기하는 연습> 등 소확행의 라이프스타일을 이끄는 책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도 연장선에 있다. 20대 사이에서 크게 관심 받고 있는데, 이는 가파른 계단식 성장 구조의 첫 단계에서 좌절을 맛보고 있는 세대가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집과 결혼보다는 취향과 생각을 갖겠어.” 영화 <소공녀>의 미소는 그들의 가치관을 보여준다. 그녀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변변한 직업 없이 월세도 못 내 친구들의 집을 전전한다. 그러나 현재는 있다.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극세사 이불 덮기, 아무 날도 아닌데 친

구와 선물 주고받기, 모든 걸 잊고 덕질하기... 지금 당장 자신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잘 알고 있다.

행복을 찾아 끝없이 고민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소확행은 소유보다는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다고 금욕적인 미니멀리즘이나 자기 성찰을 추구하는 건 아니다. 소확행은 순간의 행복을 위한 약간의 과한 소비를 타하지 않는다. 인형뽑기 방에서 필요 이상의 돈을 쓰며 ‘탕진잼’을 외치기도 하고, 친구들과 잘 차려입고 예쁜 디저트 가게에서 ‘프티사치’를 부리기도 한다. 자신은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반려동물에게는 비싼 간식을 먹이는 ‘대리사치’도 누린다. 그래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보다는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를 따진다.

손에 들어오는 작은 행복을 잡기는 쉬워 보인다. 그러나 까탈스러운 고양이와 닮았다. 쓰다듬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안으려면 도망가버린다. 소확행을 이루려면 돈과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걸 찾아야 한다. 여기에는 경험, 감각, 실력이 필요하다.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분명히 알아야만 스스로에게 만족할 만한 선물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아울러 100명이 있다면 100명의 소확행이 제각각이다. 어떤 이는 햇빛 좋은 주말에 이불을 말리는 걸 좋아한다. 어떤 이는 귀찮은 일은 세탁소에 맡기고, SNS에서 인기 있는 디저트 가게를 찾아간다. 특별한 취향에 호소하는 독립 잡지나 독립 출판물이 인기를 모으는 이유도 이와 통한다.

당신에게 행복은 무엇인가? 모두가 쫓아다니는 번쩍이는 신기루가 아니라 당신 주머니에서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가? 그게 있다면 당신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운아’다. 당신은 고된 일이 끝나도 쉽게 충전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현재의 즐거움으로 잠재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 순간을 있는 그대로 즐기고, 작은 행복을 만끽할 기회를 충분히 얻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찾아봐야 한다. 온몸의 감각을 열고 내 몸을 두드리는 작은 즐거움을 발견해보자.



그림책에

사랑하는 모든 과정을 담다

그림책은 세상에서 가장 문턱이 낮은 책이다. 굳이 글씨를 읽지 않아도, 한 장 두 장을 넘겨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작가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글과 그림이 아닌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책이 아닐까. 이런 그림책의 매력에 빠진 교사들이 있다. 그림책이 좋아서 모였고, 창작하고 싶어서 그림책을 만들게 되었다는 '좋아서 하는 그림책 연구회'. 이들과의 만남은 따뜻했고 진솔했다.

좋아
서
하
는
그
림
책
연
구
회



Drawing



보는 그림책에서 그림책을 만들기까지

“와~ 이건 뭐예요?”

“오늘 수업에서 아이들이랑 해본 거예요.”

“멋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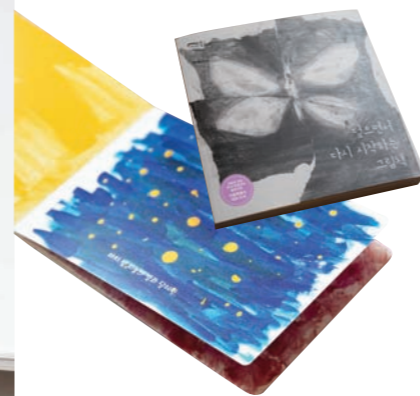
일주일에 한 번 다양각색의 그림과 이야기가 펼쳐진다. 7명의 선생님과 구성된 ‘좋아서 하는 그림책 연구회’의 모임이 있기 때문이다. 좋아서 하는 그림책 연구회는 지난해 11월 말 이현아 서울 흥릉초 교사와 그의 대학 동기 이한샘 서울 신길초 교사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블로그를 통해 모임을 제안하자 다양한 문의가 들어왔다. 그림책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그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과 만나 덜컥 결성된 것이 ‘좋아서 하는 그림책 연구회’다. 연구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들의 모임은 진지하다. 보통의 책 모임처럼 책을 읽고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작을 목표로 한다. 왜 하필 창작일까? 이 물음에 설려나 서울 번동초 교사의 눈이 반짝 빛났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스

스로 틀에 갇힌 느낌이 있었어요. 그걸 깨고 나눌 필요가 있었죠. 여러 길을 찾았는데, 결국 얻은 답이 창작이었어요.”

이들에겐 그림책이 작가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이 없다. 그림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잘 훈련된 스킬보다 온전히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표현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한다. 이규도 서울 신화초 교사는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한다. 배움에는 자기 표현의 과정이 필요하며, 자기표현의 과정은 창작으로 이어진다고 말이다.

스스로 만들고 창조하는 세계는 남다르다. 그림책이라는 세계에서 창조주가 되는 기분이다. 또한 그 세계에는 틀이 없다. 상상하는 모든 것이 이야기가 된다. 그 과정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들의 모임은 시간가는 줄 모른다. 평일 저녁 모임은 밤 10시를 넘기기 일쑤며, 방학 중 모임은 아침 9시에 시작해 저녁 6시까지 이어진다. 그림책에 꿀을 발라놓기라도 한 것처럼, 그림책과의 달콤한 데이트로 6개월이라는 시간을 함께 지내왔다.



그림책 속에 아이들 사랑이 묻어나다

그림책 사랑에 푹 빠진 교사들. 역시 사랑하는 아이들을 빼놓을 수 없다. 교사들의 모임이니만큼 연구회의 지향점 한편에는 아이들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다. 조시은 서울 탐산초 교사는 우연치 않게 시작한 그림책 창작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가 얻은 소중한 경험은 아이들과 함께할 것이다.

이현아 교사는 “닫혀 있는 유리 덮개를 열고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싶다”라며 일찌감치 출판사 ‘교육미술관 통로’를 통해 아이들의 반짝이는 창작물을 출판물로 남기고 있다. 공교육

현장에서는 상상하지 못한 신선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책을 연구하는 과정은 아이들과의 수업으로 연계된다. 연구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를 수업에서 실천해보고, 교실에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모임에서 나누는 과정을 계속하고 있다.

우서희 서울 자운초 교사는 “그림책을 매개로 교육에 대해 생각해보고, 교사로서 나를 돌아보고 물어보게 되더라. 그 과정이 참 좋았다”라며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본다.

좋아서 하는 그림책 연구회는 독특하게 안과 밖의 모임으로 진행된다. 일주일에 한 번 운영진만의 연구모임이 ‘안의 모임’이라면, 한 달에 한 번은 특별한 주제를 정해 나눔 모임을 갖는 것을 ‘밖의 모임’이라 부른다. 교사들이 주도하는 모임이지만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창작을 위한 모임답게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직접 창작을 하는 과정까지 즉석에서 펼친다. 그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의 삶과 마음을 만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1년 동안 총 열 가지 주제로 진행되는 나눔 모임의 결과는 올해를 마무리하며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학교와 모임을 병행하다 보면 지칠 법도 한데 이들의 삶은 오히려 에너지가 넘친다. 그림책은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지도”라는 송혜은 서울 흥릉초 교사나 “삶에 대한 질문”이라는 이한샘 교사의 이야기처럼, 그림책을 통해 그들이 찾던 아이들 마음의 지도, 삶에 대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이 아닐까.



좋아서 하는 그림책연구회의 '나눔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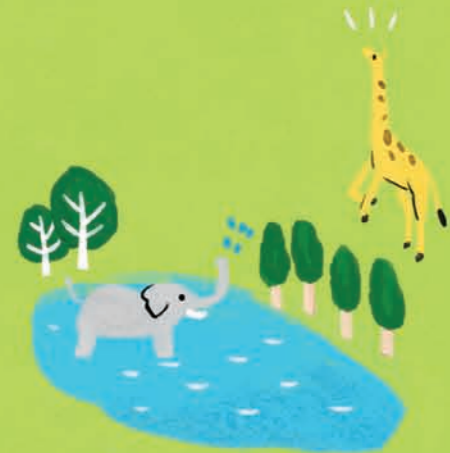
좋아서 하는 그림책 연구회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나눔 모임을 갖는다. 이 모임은 세미나 강의가 아닌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직업, 연령, 성별에 제한 없이 그림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매달 정해진 주제에 따라 깨기-꺼내기-나누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을 통해 즉석에서 창작을 하는 체험도 할 수 있다.

● 블로그 : blog.naver.com/okastor

우리의 지구를 위한, 그린 스토리



바야흐로 쓰레기 대란이다. 언론에서는 중국의 쓰레기 수입 거부가 작금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단지 그뿐만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안다. 때마침 6월 5일은 1972년 유엔인간환경 회의에서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우리 주변 다양한 그린 스토리, 지구를 위한 크고 작은 다양한 활동을 만나보자.



총 대신 꽃을 들다 게릴라 가드닝

도심 한복판에 수상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일명 꽃을 든 전사들, 게릴라 가드닝(Guerrilla Gardening)이란 '도심에 버려졌거나 아무도 돌보지 않는 땅에 꽃 등의 식물을 심어 작은 정원을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이를 통해 땅 주인이나 시민에게 '땅을 올바르게 사용하자'라는 메시지를 던지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온 시민운동이다. 국내에서는 2013년 건국대 환경과학과 학생 10명이 모여 만든 쿨라워(KU:FLO-WER)가 그 시작이다. 이들은 학교 담장에 '깡통 화분'을 심거나 흙과 씨앗을 묻혀 땅에 투하할 수 있는 '씨앗 폭탄'을 배포하는 등 지금껏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삭막한 도시에 짓궂은 장난을 통해 '땅을 땅답게'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한다.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순환 래;코드(RE;CODE)

환경을 위한 가치 있는 소비를 제한하는 래;코드(RE;CODE)는 소각용 의류, 자동차 에어백·시트 커버, 군 의류·텐트·낙하산 등 안타깝게 버려지는 제품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새로운 제품으로 탈바꿈해주는 업사이클링 브랜드다. 유능한 독립 디자이너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지적 장애인, 미혼모 그리고 새터민 같은 사회적 약자와 협업해 그들의 자립을 돕는 등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순환을 꿈꾼다. 명동에 자리한 '래;코드 나눔의 공간'과 돈의문 '리스튜디오(RE;studio)'에서는 군용 낙하산 끈을 활용한 플랜트 헤어(화분걸이), 재킷 소매로 만드는 젤류 파우치 등 다양한 환경 워크숍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 ☞ 장소 서울 중구 명동길 74 가톨릭회관 신관 지하 1층 112호
- ☎ 문의 02-318-6349

자연과 하나되는 시간 언플러그드 캠핑

언플러그드 캠핑(Unplugged Camping)을 단적으로 말하면 캠핑장 편의 시설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캠핑을 말한다. 캠핑의 본래 취지를 살린 친환경 캠핑으로 문명의 혜택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자 하는 바람을 안고 있다. 자연에 다가선 캠핑은 불편하다. 전기를 끌어들일 수 없으니 랜턴이나 촛불에 의지해 저녁을 준비해야 하고, 더위나 추위를 그대로 견뎌야 하는 상황도 있다. 어려므로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언플러그드 캠핑. 하지만 편의로 가득한 캠핑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캠핑의 참맛을 선사할 것이다. 자연 속에서 온전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 캠핑 본연의 낭만은 약간의 불편함에서 시작된다.

- ☞ 장소 이포보웰빙캠핑장 경기 여주시 대신면 여양로 1935-177

폐기물을 되새기는 공간 서울새활용플라자

'자원순환도시 서울 비전 2030'을 토대로 새활용(Upcycling)에 대한 환경·사회·경제적 인식을 넓히고, 업사이클링 기반 산업을 육성하고자 건립된 공간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시민의 참여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생산·유통·소비의 가치를 건강하고 순환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교육, 워크숍, 공연, 전시 등을 통해 스스로 친환경적 라이프스타일을 구축한다. 디자이너와 시민이 함께 채워나가는 공간, 환경을 생각하는 치열한 고민이 즐거운 놀이가 되는 곳. 특히 매달 첫째 주 주말에는 작가들이 직접 만든 상품을 중심으로 유기농 친환경 먹거리, 농·특산물 등을 만날 수 있는 새활용 마켓이 열린다.

- ☞ 장소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 ☎ 문의 02-2153-0400

자연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청정성 이니스프리

자연주의 브랜드 이니스프리는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일상의 작은 노력을 알리고 함께 실천하고자 한다. 이것이 결코 거창하거나 지루한 활동이 아니며 일종의 놀이로 전환시킨다. 365일 일상에서 놓아치려 즐기는 지구를 위한 활동 '에코 손수건 캠페인'과 '공병 수거 캠페인'은 물론 1년에 단 하루 자연에서 행해지는 특별한 그린 라이프 축제 '플레이그린 페스티벌'은 즐거움이 가득하다. 이니스프리의 환경보호 캠페인 '그린마인드'와 '그린프라이스'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중 그린프라이스는 연간 1만 그루 이상 나무 심기, 판매 수익금 1% 기부 등을 약속하는 활동 등 자연과 이웃을 생각하는 철학을 고집스레 실천해나가고 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숨은 보석, 도나우강 따라 흐르는 짙은 예술의 향기

헝가리 - 부다페스트

동유럽 여행의 주제는 다양하다. 문화면 문화, 역사면 역사, 어느 주제를 따라가도 여행자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동유럽 여행의 가장 흥미로운 주제는 예술이 아닐까.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도나우강을 따라 느끼는 동유럽 예술의 향취는 잊지 못할 감동과 여운을 선사할 것이다.





동유럽표 젓빛 하늘을 품은 도시

헝가리 부다페스트행 야간열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체코 프라하 역에서 부다페스트까지는 9시간 정도 걸린다. 6명이 함께 타는 비좁은 쿠셋(침대칸) 꼭대기에서 선잠을 잔 것 같다. 덜컹거리는 소리에 가끔 잠에서 깬고, '지금쯤 국경을 넘어가고 있겠구나' 생각하며 다시 까무룩 잠이 들었다. 가끔 차창을 스쳐 가는 가로등 불빛에 눈이 부시기도 했다. 부다페스트 역에 도착한 시간은 아침 8시. 커다란 트렁크를 끌고 역사 밖으로 나오니 이방인을 가장 먼저 반기는 건 역사나 젓빛 하늘이었다. '동유럽표 하늘'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우중충한 하늘. 어디에선가 잔뜩 물려온 두툼한 먹구름이 부다페스트 시내를 뒤덮고 있었다. 무거운 트렁크를 끌며 반질거리는 돌길을 가는 동안 귓전에는 내내 '글루미 선데이'의 아련한 선율이 맴돌았다. 헝가리 하면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음악. 1935년 헝가리의 무명 작곡가 레조 세레스는 연인 헬렌에게 실연당한 아픔을 담아 '글루미 선데이'라

는 곡을 썼다. 음반이 출시된 지 8주 만에 헝가리에서만 187명, 전 세계에서 수많은 젊은이가 이 노래를 들으며 세상을 떠났다. 레조 세레스 역시 자기 노래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는 죄책감에 자살을 선택했다. 로프 슈벨 감독은 이 믿기지 않는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 <글루미 선데이>를 만들었다. 영화는 자보와 일로나, 안드라스라는 두 남자와 한 여자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사랑에 관해 이야기한다. 미로처럼 좁은 골목을 걸어가는 동안,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던 일로나의 모습과 그녀를 바라보던 안드라스의 강렬한 눈빛, 그리고 영화 내내 흐르는 치명적인 피아노 선율이 머릿속에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다 사라졌다. "당신을 잃느니 당신의 반쪽이라도 갖겠소." 자보의 안개 같은 목소리도 골목 저편 어디에선가 들리는 듯했다. 그런 부다페스트에 도착해 처음 찾은 곳은 '세체니 다리(Szecheny Lanchid)'다. <글루미 선데이>의 배경지이기도 하다. 밤에 불을 밝히는 전구가 멀리서 보면 사슬처럼 보인다고 해서 세체니(사슬)라는 이



1. 세체니 다리. 부다페스트를 찾는 여행자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다. 도나우강을 연결하는 8개의 다리 중 가장 아름답기로 손꼽힌다.
2. 어부의 성채. 어부들이 파수를 보며 적을 방어하던 곳이다.
3. 어부의 성채에서 바라본 풍경. 도나우강과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4. 세그웨이(Segway)를 타고 부다페스트 시티투어를 즐기는 관광객들.
5. 마차시 사원. 네오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웅장하면서도 화려한 외관이 돋보인다.

름이 붙었는데, 도나우강을 연결하는 8개의 다리 중 가장 아름답기로 손꼽힌다. 세체니 다리 양끝에는 커다란 사자상이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곳 사자에게는 허가 없다. 별명이 '허 없는 사자상'인 것도 이 때문이다. '조각가가 깜박 잊고 허를 만들지 않았다' '더 이상 싸우지 말라는 의미로 일부러 만들지 않았다' 등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허가 없으니 울지 못한다. 그래서 헝가리 사람들은 '가능성 없는 일'을 이야기할 때 종종 '사자가 울면...'이라는 문구를 인용하기도 한다.

부다와 페스트, 서로 다른 풍경

부다페스트는 원래 하나의 도시가 아니었다. 도나우강을 사이에 두고 각각 발전하던 부다와 페스트를 합쳐 만든 도시다. 인구는 약 200만으로 중동부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로, 부다는 귀족과 부호의 영역, 페스트는 상인의 활동 무대였다. 고대로 마의 군사기지로 개발되기 시작해 1361년 헝가리의

수도가 됐는데, 13세기 이후 헝가리 왕들이 거주한 왕궁을 비롯해 역사적 유물과 건축물이 남아 있다. 페스트는 13세기 무렵 상업과 예술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도시의 모습을 갖추었다. 부다와 페스트 두 도시는 16~17세기 터키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조 지배 하에 있었으나 1872년 합병해 하나의 도시가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변의 작은 도시까지 합쳐 지금의 형태가 완성되었다. 이 때문인지 부다와 페스트는 서로 다른 매력을 드러낸다. 왕이 살던 부다 지역은 어딘가 중후한 분위기를 풍긴다. 왕궁과 성당 등 역사적 건축물이 즐비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내는 데 한몫했으리라. 부다에서 가장 큰 볼거리는 야트막한 부다 언덕에 다 모여 있는데, 부다 성과 마차시 사원, 어부의 성채 등이 반드시 찾아야 할 곳이다. 부다 성은 13세기에 지어졌다. 전성기 시절, 빈과 함께 합스부르크 제국의 공동 수도였던 부다페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만신창이가 된다. 전후 50년 동안 지속된 공산주의 통치 역시 건물 대부분

을 파괴해버렸다. 현재의 부다 성안에 있는 부다 왕궁은 네오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 이마저도 제2차세계대전 때 파괴된 것을 복구한 것으로 고풍스럽고 우아했던 실내장식이 다 현대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현재는 역사박물관과 국립박물관, 국립도서관으로 쓰이고 있다.

왕궁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88m 높이의 첨탑이 있는 거대한 마차시 사원과 만난다. 네오고딕 양식으로 지어져 있으며, 웅장하면서도 화려한 외관이 돋보인다. 기하학 무늬의 타일로 장식된 본당 지붕도 시선을 끈다. 이곳은 마차시 왕을 비롯해 역대 국왕의 결혼식과 대관식 장소로 이용되던 곳으로 온통 황금으로 장식된 주제단이나 대관식에 사용된 베일과 성물 등 전시물이 상당히 화려하다.

뾰족한 지붕의 흰색 건물이 회랑을 이루며 길게 늘어선 어부의 성채 또한 볼만하다. 100여 년 전 건축된 네오로마네스크 양식 건물인데, 도나우강 연안에 있는 요새 중 가장 오래됐다고 한다. 과거 어부들이 이곳에서 피수를 보며 적을 방어했다고 해서 어부의 성채로 불리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적용된 반원형 아치와 고깔 모양 탑이 동양적 느낌을 물씬 풍긴다. 이곳에서는 강 건너편의 페스트 지역이 훤히 내려다보이는데, 세체니 다리의 끝자락에 위치한 아담 클락 광장에서 케이블카를 타면 언덕 위에 쉽게 오를 수 있다.

부다 언덕에서 볼 때, 페스트 쪽 강변에 성처럼 솟아 있는 건물이 부다페스트가 자랑하는 국회의사당이다. 건국 1000년을 기념해 1904년 완공한 것으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입법 건물 중 하나다. 그 위엄과 화려함을 지키기 위해 십수 년째 보수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 건물 일부만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어 가이드 투어를 신청해야 내부를 둘러볼 수 있다.

부다에 비해 페스트는 젊음과 활기로 넘친다. 특히 도나우강변에서 가까운 곳에 자리한 바치 거리는 보행자 전용 거리로 우리나라 여행객 사이에서 '부다페스트의 명동'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수많은 상점과 사무실, 은행, 레스토랑 등이 몰려 있는 페스트



1. 부다페스트를 흐르는 도나우강. 유람선을 타면 도나우강을 따라 부다페스트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다.
2. 부다 성에서 만난 거리의 악사들. 바이올린과 기타로 헝가리 전통 음악을 연주한다.
3. 부다페스트의 트램 노란 트램을 타고 부다페스트의 운치를 즐겨 보자.
4. 페스트 베틀시장에서 살 수 있는 기념품.
5. 페스트는 고풍스런 부다 지역에 비해 한결 활기차다.
6. 부다페스트 전통시장인 중앙시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이 가득하다.
7. 바치 거리는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로, 분위기 좋은 카페와 레스토랑, 상점 등이 몰려 있다.

부다페스트에 머무는 내내 트램을 타고 오래된 도시를 빙빙 돌았다. 트램은 마자르족의 후예들을 싣고 도나우강을 따라 달렸고, 검은 머리와 검은 눈동자를 가진 그들은 낯설지 않았다.

내에서도 가장 화려한 분위기를 자랑한다. 노천카페와 고급 호텔, 레스토랑, 기념품 매장 등이 이어진다. 중앙시장에도 둘러보자. 1897년 개장한 헝가리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으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와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다녀가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농업 국가 헝가리를 대표하는 신선한 농수산물과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1층에는 갖가지 채소와 과일, 치즈 등을 파는 식품품 가게가 자리하고, 2층에는 요기할수 있는 작은 식당이 즐지어 있다. 민속예술품과 골동품을 파는 상점이 몰려 있어 예전 공산권 시대의 유품 등 간단한 액세서리나 선물용품 등을 사기에도 좋다.

부다페스트를 알차게 여행하는 가장 좋은 교통수단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다. 부다페스트의 지하철은 런던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됐다. 1896년 개통한 노란색 M1 라인을 타면 당시에 지어진 지하철 역사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나무로 만든 역사와 기둥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하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지하철로는 세계 최초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M1 라인은 오페라극장과 리스트 기념관, 영웅광장 등 주요 명소를 연결한다.

부다페스트에 머무는 내내 트램을 타고 오래된 도시를 빙빙 돌았다. 트램은 마자르족의 후예들을 싣고 도나우강을 따라 달렸고, 검은 머리와 검은 눈동자를 가진 그들은 낯설지 않았다. 트램 창문을 열면 도나우강에서 습기를 가득 머금은 바람이 불어와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갔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트램은 부다페스트의 저녁을 길게 가로지르고 있었다. 어디선가 글루미 선데이의 바이올린 선율이 들리는 듯했다.



여행 정보

인천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까지 가는 직항편은 없다. 체코 프라하까지 가서 아간열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인천-프라하는 11시간 소요, 프라하-부다페스트는 8시간. 시차는 8시간 느리다. 음식은 요리할 때 마늘과 매운 파프리카 등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어려므로 우리나라 음식과 비슷하다. 헝가리 전통 수프인 굴라시는 고기와 채소를 썰어 넣고 끓인 것으로 먹다 보면 콧등에 땀이 송송 맺힐 정도로 맵다. '복 비스트로(Bock Bistro)'는 미쉐린 가이드에도 소개된 레스토랑이다. 헝가리 와인은 대부분 자국에서 소비하는 만큼 해외에서는 맛보기 쉽지 않는데, 이곳에서는 자체 와이너리에서 생산하는 와인도 함께 마실 수 있다.





1963년부터 2008년까지 45년 동안 와이어 로프를 생산하던 공장은 2016년 9월 부산비엔날레 전시를 계기로 다른 생을 살게 된다. 자연과 예술, 그리고 사람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 바로 F1963이다.

F1963

기계 중심의 와이어 공장에서
재생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다른 생의 가치



모를 자랑하는 예스24 중고서점에 구석구석 놓인 활자 주조기, 인쇄기 등은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고려제강 시절의 것을 그대로 남겨놓은 것 같은 유리창 문틀 아래 벤치는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속삭이는 듯하다. 카페 테라로사 입구에 들어서면 와이어의 다른 면모를 보게 된다. 와이어로 만든 설치 작품을 시작으로 와이어 공장의 오래된 철판으로 되살린 커피 바와 테이블, 그 당시 사용하던 발전기와 와이어를 감던 보빈까지. 낯설고 거칠게만 느껴지던 공장의 사물들은 일상으로 들어와 새로운 예술적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면 맹종죽(대나무) 숲길이 보인다. 이곳도 공장 바닥의 콘크리트를 잘라 조성했다고 한다. 강한 와이어와 대나무의 꽃꽂음이 묘하게 잇닿아 있다. 거세고 거친 것도 다시 쓰면 새로워진다. F1963의 매력은 그 안에 있다.

F1963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락로123번길 20
오전 9시 ~ 밤 12시 ☎ 051-756-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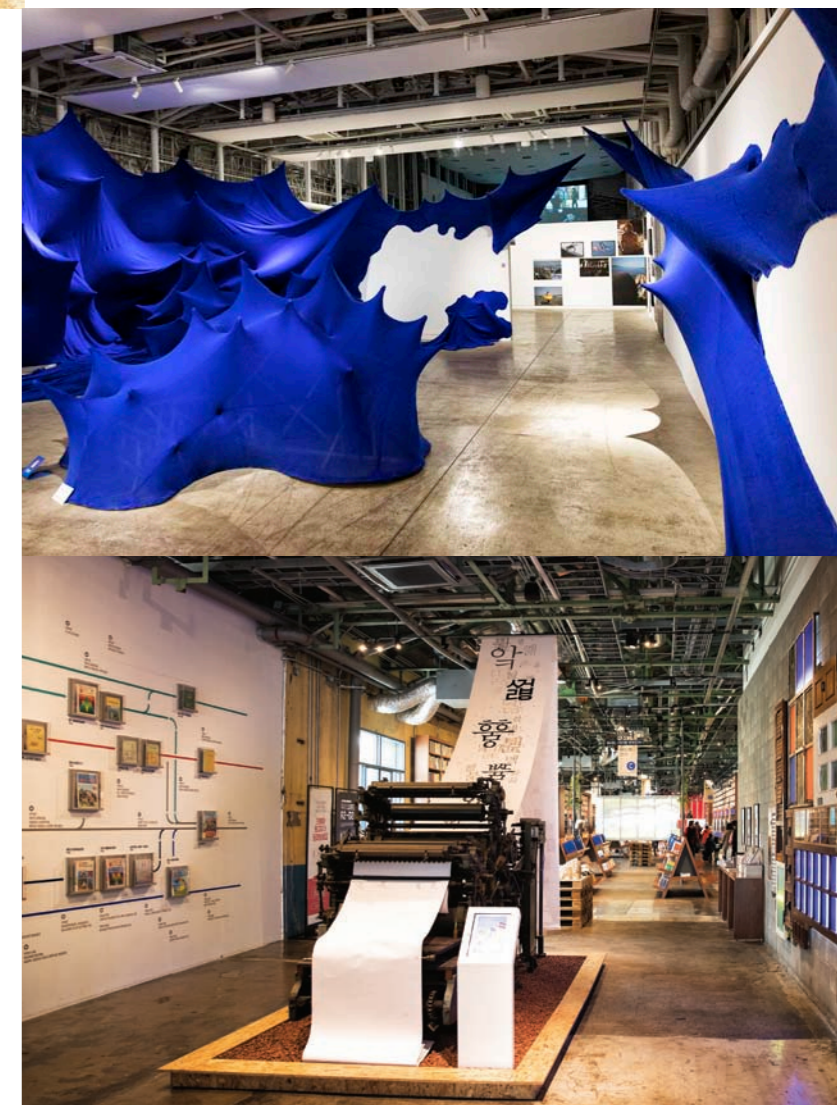


옛 것에 입힌 새로운 생

논과 밭에 둘러싸인 공장은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냈다. 새벽부터 밤까지 근로자들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고, 산업화의 기틀을 만들기 위한 구슬땀이 가득했다.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자리한 고려제강이 처음으로 공장을 지은 해인 1963년에서 1963을, Factory에서 F를 가져와 F1963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이름을 얻었지만, 건물이 가진 성질은 그대로다. 재생 자체의 아름다움을 돌보이도록 노력한 조병수 건축가의 철학에 따라 건물의 형태와 골조는 그대로 보존했기 때문. 재생건축은 옛 것을 활용하되, 그대로 머물지 않는다. 오래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억을 보존해 또 다른 생을 입힌다.

함부로 버려야 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F1963은 어느 곳을 가도 이곳이 공장이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는다. 함부로 버리지 않아도 다른 생의 가치를 담을 수 있음을 존재 자체로 보여준다. 국내 최대 규



The-K와 함께 떠나는, 6월 문화가 있는 날



대전 미술의 새로운 지표를 열다 이응노 오마주 - 땀, 담벼락, 눈썹, 살갗에 그린다

대전 미술의 새로운 지형을 그려가는 5명의 작가가 이응노 화백의 예술 정신을 이어가는 오마주를 그린다. 노상희, 복기형, 윤지선, 이갑재, 이성희 작가는 사람과 사람, 지역과 사람, 지역과 지역의 관계성을 잊지 않고 회화, 설치, 사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표현한다. 더불어 다섯 작가의 작품과 함께 소통, 화합을 의미하는 이응노 화백의 작품도 배치했다. 이번 전시는 이응노 화백을 새로운 시각으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 기간 ~7월 1일(일)
- 📍 장소 대전이응노미술관
- 💰 관람료 성인 500원 / 청소년·어린이 300원

사갈의 영혼과 함께 떠나는 산책길 마르크 사갈 특별전 영혼의 정원展

“그 무엇보다 내 영혼의 세계를 잘 보여주는 건 예술이다” 두 번의 전쟁과 혁명 등을 겪으며 힘든 현실을 보낸 마르크 사갈. 그러나 그의 내면은 항상 평화, 사랑, 힐링이 가득했다. 그의 내면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이번 <마르크 사갈 특별전-영혼의 정원>은 80년 넘도록 그림을 그리고 생이 다할 때까지 그림 작업을 멈추지 않은 작품에 대한 그의 여정을 담는다. 사갈의 작업실을 재현해 평화 체험이 가능한 ‘사갈의 공방’도 마련되어 있다. 사갈의 인생과 내면 세계를 통해 개인의 시간을 돌아보는 것도 좋겠다.

- 📅 기간 ~8월 18일(토)
- 📍 장소 M컨템포러리
- 💰 관람료 성인 1만3000원 / 학생 1만원 / 어린이 8000원



EXHIBITION

강렬한 춤의 언어로 북유럽 문화를 나누다 〈스웨덴 커넥션 I〉

2019년 한국과 스웨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양국을 대표하는 국립현대무용단과 스코네스댄스시어터의 안무 교류 프로젝트가 열린다. 스코네스댄스시어터는 스웨덴의 친환경 문화 도시로 유명한 말뫼에 위치한 무용 제작 극장이자 무용단으로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다국적 안무가 및 무용수와 컬래버레이션 공연을 펼친다. <스웨덴 커넥션 I>은 ‘두 점 사이의 가장 긴 거리’, ‘깨뜨릴 용기’, ‘하프 하프’, ‘엔터테인먼트’ 총 4개 작품이 담겨 있으며,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며 실용과 미니멀리즘을 구현하는 스웨덴의 문화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 📅 기간 6월 15일(금)~6월 17일(일)
- 📍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 관람료 R석 3만원 / S석 2만원

PERFORMING



명작의 진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제목만으로도 감동이 되는 명작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3년 만에 돌아왔다. 출판 6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리며 풀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한 마거릿 미첼의 원작 소설과 동명 영화에 대한 향수를 지닌 중·장년층을 비롯해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번 공연은 주인공 공스칼렛과 레트의 황혼 키스 신을 비롯해 동명 영화의 명장면을 그대로 재현해 고전의 감동을 고스란히 전할 예정이다.

- 📅 기간 ~7월 29일(일)
- 📍 장소 샤프트시어터
- 💰 관람료 VIP석 14만원 / R석 12만원 / S석 8만원 / A석 6만원



MUSICAL

수치화된 가계 분석으로 부채 위험 줄여야

주식 투자를 위해 기업 분석을 할 경우 재무상태표라고도 불리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주의 깊게 보게 된다. 부채 규모가 적절한지,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지, 현금이 원활히 흘러가고 있는지는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 된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월급이나 이자 소득 등 고정 소득과 상여금 등 변동 수입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 공과금, 세금, 대출 상환금 같은 고정지출금과 식비, 의료비, 학원비 등 변동지출금을 합산해 저축 및 투자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자칫 변동 지출 내역을 가버이여길 경우 저축 및 투자 가능 금액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 월 지출 평균 액수를 최대한 맞추고 급하게 쓸 일이 생기면 비상금 통장을 활용하면 된다. 특히 여행이나 자동차 구입 시에도 즉흥으로 변동 지출을 발생시키기보다는 목적 적금 불입 만기 후 구입하자. 사전에 계획하고 소비하는 고정 지출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적절한 부채 수준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동산의 대부분을 대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가계의 현 상태를 감안하면 금리상승기에는 대출을 최소화해 이자 비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재테크가 된다. 필수 소비 지출을 차감한 가구 소득에서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 예금이나 적금 가입 시 0.1%p의 이자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대출금리 이율도 세세하게 따짐으로써 높은 이자 비용 부담으로 인한 가계수지 적자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 특히 대출 상품 선택 시에는 변동 및 고정 금리 여부, 대출 기간, 중도 상환 가능성 등을 검토해 상환 계획을 면밀히 세운다. 금리상승기이거나 장기 대출을 받을 때는 고정금리로 대출 받는 것이 유리하고, 원리금 균등 상환보다는 원금 균등 상환이 총이자 비용 또한 더 저렴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 현금 유동성 확보도 중요한데 자산이 부동산이나 장기 예금 및 보험에 편중되어 있다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중도 해지에 따른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CMA 통장을 활용해 현금을 일정 수준 보유해놓아야 한다.

정량적 가계 분석과 효율적 비용 통제

한동안 '짠테크'가 인기를 끌었다. 짠테크는 짠돌이와 재테크의 합성어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푼돈부터 차곡차곡 절약, 저축해 자산을 불리는 재테크를 말한다. 굳이 짠테크가 아니더라도 수입과 지출 등 가계의 자산 현황을 수치화해 면밀히 분석하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통제한다면 노력 대비 성과는 배가된다.



고정 수입, 핵심은 비용의 효율적 통제 여부

재테크를 위해서는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달성하려면 먼저 종잣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직장인의 경우 수입이 한정되어 비용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안정적인 소득에도 불구하고 늘 돈이 부족하다 보니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늘리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다. 절약을 하며 비용을 줄일 때에는 나름의 명분을 내세우면 실천하기 좀 더 수월해진다. 건강을 위해 야식 섭취를 줄이고, 남달리 환경을 생각해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유료비를 절약하는 것이다.

재테크를 하면서 가장 어렵고 하기 싫은 일은 바로 절약으로 비용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무조건 아끼면 스트레스만 높아질 수 있다. 비용을 줄여도 생활하는데 지장이나 무리가 없어야 하고, 행복 지수에 역행하면서까지 힘들게 비용을 줄이지는 말아야 한다. 같은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인터넷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견적을 비교한다거나 자동차 구입 시 연비가 좋은 차를 구입하거나 불필요한 옵션으로 차값을 높이지 않도록 하며, 보험을 가입할 때는 꼭 필요한 보험을 온라인 실손 위주로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꼭 필요한 것을 사지 않고 참는 것은 자칫 절약이 아닌 고통이 될 수 있다. 불필요한 것을 구입하거나 사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비용을 효율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사야 할 제품은 저렴하게, 필요한 지출은 적절하게 소비하는 것이다.



소비와 지출 선택 시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지출과 비용, 소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더라도 종잣돈 마련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기회비용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는 것이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기회비용에 대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어떤 자원이나 재화를 이용해 생산이나 소비를 했을 경우 다른 것을 생산·소비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잠재적 이익을 의미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가지고 하나를 선택한 경우 포기한 다른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평가액이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브랜드 커피 판매점에서 5000원짜리 커피를 하루에 두 잔씩 1년 동안 사 마신다고 가정해보자. 자신의 구미를 위해 하루에 1만원씩 1년 동안 365만원의 돈을 커피에 투자하는 셈이다. 그런데 하루 1만원을 매월 30만원씩 1년짜리 5% 적금 상품에 투자했다면 365만원 원금에 약 9만원의 이자가 더해진다. 결국 커피를 마시는 즐거움에 투자하면 목돈 마련의 기회가 사라지고, 목돈을 마련하거나 건강을 위해 인내한다면 커피로 즐기는 만족을 포기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기호식품인 커피를 선택함으로써 잃은 기회비용은 365만원에 이자를 더한 374만원이라는 것이다. 1년이 아닌 10년 복리로 계산한다면 커피를 마시므로써 잃은 기회비용은 더 크다. 더구나 적금이 아닌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했다면 그 차이는 훨씬 놀랍게 벌어진다. 결론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기에 앞서 기회비용을 충분히 고려하면 좀 더 신중하게 지출과 비용을 통제할 수 있다. 특히 주식은 기업 분석, 부동산은 입지 분석이 중요한 것처럼 개인은 정량적 가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꼭 명심해야 한다.

최지만 경기 부천 석천초 교사
개인 투자가로 KBS <아침마당>
MBC <경제매거진> EBS <부
모광장>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
램에 출연했으며, 2015~2016
년 <한국교육신문>에 경제 칼
럼을 기고하였다. 국무총리·교
육부장관·경기도지사·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힘껏 던져라! 담장을 넘겨라!



자녀와 아버지와 스승을 한꺼번에 챙겨야 하는 5월은 누구에게나 바쁘고 정신없는 달이다. 특히 각각의 연령과 취향을 고려해 나들이 계획을 짜야 하는 부모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것도 바로 이 시기다. 이런 중대한 때에 교직원공제회가 어찌 팔짱만 끼고 있을까? 화창한 5월 어느 날, 야구장을 들썩이게 만든 교직원공제회 가족들의 신나는 야구 관람기를 공개한다.



공제회와 함께 하는 프로야구 회원 초청 행사



시타와 시구, 평생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

5월 10일 이른 저녁, 수원 kt위즈파크 야구장. 시작 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지만 일찌감치 티켓 부스를 차려놓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교직원공제회) 천막 아래에는 슬금슬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동료, 가족, 애인, 당당한 싱글족까지 모두가 즐거운 표정으로 줄을 서서 좌석표와 생수, 응원봉을 받아 챙겼다. 그중에는 kt 위즈 유니폼까지 갖춰 입고 온 열혈 교직원 가족도 보였다. 오늘 야구 행사를 얼마나 기다렸을지 그 기대감이 넘쳐나게 짐작이 가는 현장이었다. 오늘 야구장 행사는 교직원공제회에서 5월 한 달간 각 지역별로 개최한 행사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중 하나로 꼽히는 야구인지라 좌석 신청부터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시타야기, 경기 시작 전 시구 시타 이벤트 역시 300건 넘게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제일 먼저, 오늘 시구를 맡은 최민정 교사 가족을 만나기 위해 야구장 내 VIP실로 자리를 옮겼다. 긴장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부모와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시연(경기 안양 만안초) 양이 환한 표정으로 방문객을 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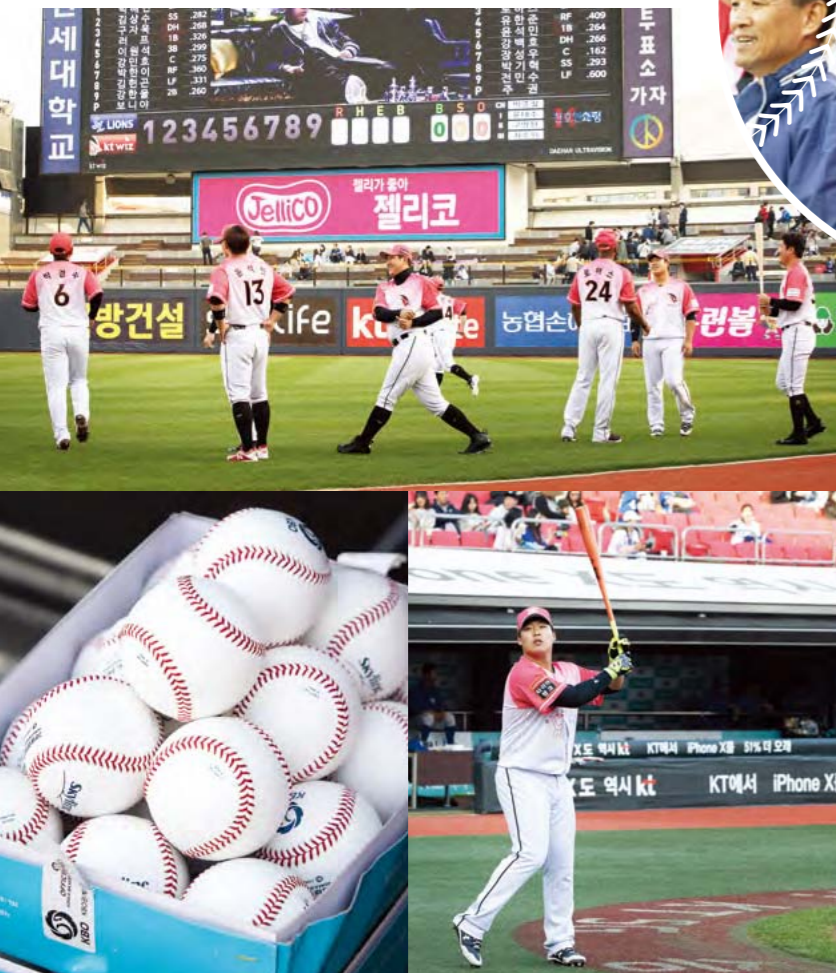
“사실 큰 기대 없이 신청했는데 시구자로 뽑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오늘 행사를 통해 시연이가 자신감을 얻고 잊지 못할 추억으로 오래오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안양 만안초 병설유치원에 재직 중인 최민정 교사는 선천성 난치병으로 오른팔을 잘 쓰지 못해 체육 활동에 제약이 받아온 시연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시구를 한다는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며 기뻐했다. 최 교사의 부군 역시 오늘을 위해 주말마다 딸과 맨연습을 했다고 털어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반에서 회장을 맡을 정도로 적극적인 시연이지만 오늘 이벤트를 계기로 더 큰 자신감을 갖길 바라는 부모의 모습이 더없이 몽클하고 아름답다.

시타를 맡은 손희찬(경기 용인 백현중) 군도 엄마와 함께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헐레벌떡 도착했다. 중학생답게 제법 건장한 체구를 자랑하는 희찬이는 평소 야구를 너무나 좋아하고 즐겨온 덕분에 오늘 엄마가 선물한 이 특별한 기회가 그저 즐겁고 신나기만 하다.

“제가 그동안 세 아이를 키우면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중에 임용시험 준비를 해왔어요. 올해 합격은 했는데 그동안 공부하느라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지 못한 게 미안하고 장남 노릇 하느라 애쓴 희찬이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정말 기대돼요.”

손희찬 군의 어머니 정혜경 경기 용인중 교사가 함박미소를 지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승리를 이끈다

오늘 시구자와 시타자를 소개하는 장내 아나운서의 말에 관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시언이와 희찬이가 마스크의 손을 잡은 채 각각 타석과 마운드에 선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정확히 공을 글러브에 꽂아 넣은 시언이와 힘 있고 큰 스윙을 보여준 희찬이. 관객 모두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시구자와 시타자를 격려하자 시언이와 희찬이는 물론 지켜보는 부모들도 깊은 안도와 함께 환한 웃음을 보였다.

드디어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됐다. 오늘 경기는 kt 위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대결. 연패의 늪에 빠진 kt 위즈가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둘지 모두가 궁금해하는 와중에 평일 저녁임에도 꽤나 많이 모인 관객의 열띤 응원이 시작됐다. 600석을 꽉 채운 교직원공제회 가족들 역시 질세라 홈 팀에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다.

해가 떨어지면서 공기가 제법 쌀쌀해졌지만 야구장을 가득 메운 관중의 열기는 도무지 식을 줄을 몰랐다. 안타를 칠 때면 환호성이, 잘 맞은 상대팀의 타구를 외야수가 깔끔하게 잡아낼 때면 격려의 함성이 쏟아지고 흥에 겨운 관중을 보는 재미 또한 컸다.

김정애 과천여고 교사 가족은 파울볼을 잡겠다고는 일념으로 글러브를 끼고 온 부군과 여덟 살, 여섯 살 두 딸까지 열렬히 응원봉을 두드리며 경기를 즐겨 주변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부군이 스포츠를 워낙 좋아해 아이들과 함께 경기장 나들이를 자주 한다는 김정애 교사는 “가족이 좋아할 것 같아 신청했다”라며 특히 교직원공제회 가족들과 다 함께 앉아 응원을 즐기는 분위기에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싱글벙글 옆에서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김 교사의 부군은 “원래 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아내가 야구장 관람 이벤트 당첨 소식을 알려와 정말 기분이 좋았다. 아내 덕분에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보냈다. 이날 김정애 교사 가족은 전광판 가위바위보 이벤트에도 참여하는 행운을 얻어 스크린에 등장하는 등 더욱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교직원공제회 가족들의 단체 응원 덕분이었을까? 삼성 라이온즈와 연장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을 벌인 kt 위즈는 11회에 황재균 선수가 끝내기 안타를 터뜨리면서 연패 탈출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한껏 달아오른 봄날 밤, 목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교직원공제회의 가족애를 다시금 실감한 소중한 시간이 모두의 마음에 잊지 못할 순간으로 기억되길 바라본다.

kt 위즈 파이팅! 교직원공제회 파이팅!

MINI INTERVIEW



경기도교육청
오정현 님, 황현운 님, 김동수 님

평소 야구를 좋아해 신청했습니다. 사실 모두 따로 신청했는데 자리에 앉고 보니 비슷하게 도착해서인지 좌석이 앞뒤더라고요. 하하. 교직원 회원들과 다 함께 모여 응원하며 보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특히 TV에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보는 게 하늘과 땅 차이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황현운 주무관은 특히 야구 직관이 처음이라 의미가 더했네요. 좋은 기회를 마련해준 교직원공제회 측에 감사드립니다.



경기 안산디자인문화고
이동연 님

평소 야구를 좋아해 kt 위즈 경기를 즐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벤트 공지를 보고 아주 기뻐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카와 매부, 여동생과 함께 경기장에 와서 웃고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뷰 기회가 흔치 않은데 혹시 지면을 빌려 구혼을 해도 될까요? 이런 여가 생활을 함께 즐길 여성을 찾습니다! 성실하고 매사에 긍정적인 좋은 가정이 되겠습니다.



교직원공제회 경기 남부지부
노상호 팀장

이번 야구 관람 행사는 우리 교직원공제회에서도 회원 여러분을 한마음으로 응원한다는 취지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시타·시구자 선발은 300 대 1의 경쟁률의 보여 관계자 모두가 놀라기도 했지요.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직원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모든 교직원이 하나 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도심 한복판에서 만끽하는 자연 속 BBQ·비어 파티

햇살이 강렬해지기 시작하면 도시민들은 다른 곳을 갈망하기 시작한다. 고층 빌딩과 매캐한 공기로 둘러싸인 도심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와 휴식을 찾아 떠나고픈 간절함이 찾아들기 때문이다. The-K호텔서울에 5월부터 9월까지 많은 사람이 몰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푸른 잔디 광장과 둘러싼 짙은 녹음 속에서 무제한 맥주와 BBQ, 라이브 음악까지 즐길 수 있는 곳. 그 모든 것을 알아보자.



The-K 호텔 서울



자연에서 야외 피크닉을 즐기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3만2000평 규모의 자연 녹지로 조성된 The-K호텔서울은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다른 마음을 품게 한다. 무성한 나무와 넓게 펼쳐진 산책로, 흐드러지게 핀 아름다운 꽃이 마치 여행을 떠난 것 같은 여유와 행복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평지에 자리 잡은, 녹지가 많은 아름다운 환경을 자랑하는 호텔 중 하나로 꼽히는 The-K호텔서울은 자연과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휴양지가 콘셉트이니만큼 해마다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방문객과 투숙객을 사로잡고 있다.

The-K호텔서울 야외 광장에서 올해로 벌써 네 번째 개최되는 BBQ·비어 파티는 울창한 숲, 시원한 맥주, 다양한 음식, 별을 헤며 듣는 음악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기막힌 감흥을 자아낸다. 강남 한복판에서 마치 동남아시아 휴양지에 온 듯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이 특별한 파티를 찾는 고객의 수는 해마다 늘면서 하루 평균 200여 명이 방문한다. 그 이유는 아는 사람만 안다는 은밀한 매력이 입소문 난 덕분이다.

“저희 호텔은 단순한 숙박 개념이 아닌 문화와 자

연을 체험할 수 있는 콘셉트의 호텔입니다. 매년 야외 광장에서 와인 페어와 가든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열린 공간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 고객 여러분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지요. BBQ·비어 파티도 고객의 요청을 수용해 녹지가 많은 우리 호텔의 장점을 살리고자 기획한 특별 행사입니다.” 이규승 The-K호텔서울 식음료부 과장의 설명이다.

오후 6시가 넘어서자 찾아드는 고객의 수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평일 고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장인들의 회식이나 친목 도모를 위해 찾는 명소로서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엿볼 수 있는 풍경이다.

최고의 음식, 무제한 맥주의 매력에 흠뻑 취하다

접시를 들고 몰려드는 사람과 훑 치솟는 불길에 고기를 굽고 두툽한 팬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많은 셰프 사이에서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김기만 총주방장이다. 그는 BBQ·비어 파티 메뉴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총책임자로서, 파티의 성패는 음식의 퀄리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만큼 잠시도 긴장의 끈을 늦추



The-K호텔서울 BBQ-비어 파티의 모든 것

- 기간** ~ 9월 20일 (목)
- 장소** The-K호텔서울 분수광장
- 시간** 오후 6시~10시
- 금액** 성인 4만2000원(월~목요일), 4만8000원(금·토요일, 공휴일)/ 소인 2만7000원(만 4~12세 미만)
- 문의** 02-526-9556~7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K멤버십 회원, 객실 투숙객, 20인 이상 단체 고객 10% 할인(중복 할인 불가)

- * 일요일, 우천 시 미운영
- * 7월, 8월에는 화~토요일만 운영
- * 6월 6일, 7월 29일~8월 6일 휴장

MINI INTERVIEW



이규승
식음료부 과장



주변을 에워싼 녹음 속에서 야외 피크닉 느낌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날씨에 민감한 야외 행사가니만큼 파라솔과 담요도 준비돼 있습니다. 고품질 음식과 라이브 음악, 무제한 맥주로 최고의 밤을 선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근처 숲길을 산책하는 것도 저희 호텔에서에서만 만끽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오후 8시 30분에 시작하는 럭키드로도 잊지 마세요.



김기만
총주방장



The-K호텔서울의 식자재 관리는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고객 여러분에게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매일 새벽 직접 검수를 합니다. BBQ-비어 파티의 음식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육류에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2~3일 전부터 마리네이드해 숙성시켜 초벌구이를 한 양갈비는 최고 인기 메뉴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메뉴가 고객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태경
회사원



업무를 마치고 친구들과 맥주 한잔하러 왔어요. The-K호텔서울 페이스북을 통해 BBQ-비어 파티를 알게 됐는데 친구들에게 "야외에서 고기랑 맥주 한잔 콜?"이라고 하니 바로 달려오더라고요. 음식 종류도 많고 고기가 특히 맛있어서 모두 만족합니다. 그중 제가 좋아하는 클라우드 생맥주를 무제한 마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음악과 분수까지 있으니 제대로 힐링하는 기분이에요.

지 않고 모든 것을 매의 눈으로 감독하고 있다. "음식은 대략 32종을 준비합니다. 술안주로도, 식사로도 손색없도록 갖출 건 다 갖추고 있지요. 메뉴를 구성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동서양 요리의 불맛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캠핑이나 야외 바비큐의 백미는 아무래도 숯불을 피워 만든 불맛이니까요."

그래서일까? 줄을 서서 음식을 담아 드는 고객들의 표정은 한결 만족스럽다. "생각보다 너무 훌륭하다" "고기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 "여긴 양갈비가 제일 맛있더라" 등등 속닥거리는 소리가 그 어떤 음식 전문가의 리뷰보다 생생히 다가온다. 접시에 샐러드부터 고기류, 식사류를 듬뿍 담아가는 사람들, 대형 맥주잔에 맥주를 담아 가져오는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즐기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잔디밭 위를 뛰어다니고, 한쪽에서는 "건배!"를 외치는 직장인들의 모습에 신나는 라이브 음악이 곁들여지니 '이것이 바로 축제구나' 싶다. 친구들과 함께 왁자하게 웃고 떠들며 파티를 즐기던 회사원 김태경 씨는 "가격 대비 최고의 음식과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어둠이 짙어지자 운치가 더욱 살아난다. 저녁이면 아직 서늘한 날씨를 고려해 호텔에서 준비한 담요와 뜨끈한 어묵탕, 아름다운 조명과 함께 분수가 쏜다. 이 풍경을 고스란히 담고 싶어 너도 나도 휴대폰으로 기념사진을 찍는다. 여유와 힐링을 만끽하는 것이다. 더불어 오후 8시 30분에 시작한 럭키드로(Lucky Draw) 역시 고객들의 기대와 흥 그리고 큰 박수를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규승 식음료부 과장이 The-K호텔서울만의 장점을 내세웠다.

"이렇게 녹지가 아름답게 조성된 곳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우리 호텔밖에 없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도심 속에서 휴양지에 온 느낌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찾아주십시오. 마음을 다한 최고의 서비스와 음식으로 모시겠습니다."



The-K호텔서울
서울 서초구 바우외로12길 70
02-571-8100
thek-hotel.co.kr



한국교직원공제회

스승의날 기념 회원 초청 '오페라 갈라' 공연 개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스승의날을 맞아 5월 1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랜드 오페라 갈라 전관 공연 행사 '천명의 위대한 스승'을 개최했다. 이날 공연에는 응모를 통해 초청된 20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관람석을 가득 메웠으며, 별도의 사연 응모를 통해 초청된 교사와 제자 등 단체팀도 함께했다. 스승의날을 기념해 공연에 앞서 다양한 식전 행사도 펼쳐졌다. 공연장 앞에는 회원의 동선에 따라 레드 카펫이 펼쳐졌으며, 로비를 장식한 화려한 카네이션 조형물과 포토존, 케이터링 부스 등의 설치로 파티 분위기를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깜짝 이벤트에 나선 브라스밴드와 합창단의 플래시몹 공연은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 이날 참석한 모든 회원에게는 기념품으로 데스크 패드와 카네이션 브로치를 증정했다. 1·2부로 진행된 오페라 공연에는 서울시예술단과 서울시합창단이 나섰다. 오페라 <카르멘>의 '투우사의 노래', <투란도트>의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등 친숙한 오페라 곡을 중심으로 국내 최고의 성악가들이 아름다운 아리아를 선보이며 감동을 선물했다.

공제회와 함께하는 '문화라운지'... 12일까지 응모

공제회와 함께하는 '문화라운지' 회원 초청 행사가 부산과 제주에서 개최된다. 6월 12일까지 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에서 응모가 가능하며, 당첨자는 6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 문의 1577-3400



▶ 뮤지컬 <명성황후>
장소 부산 소항씨어터 신한카드홀
공연 일시 6월 29일 오후 7시 30분
초청 인원 100명 (1인 2매 제공)
좌석 등급 VIP석

▶ 공연 <난타>
장소 제주 난타극장
공연 일시 7월 6일 오후 8시
초청 인원 100명 (1인 2매 제공)
좌석 등급 VIP석

제7회 대한민국스승상 시상식 개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교육부가 공동주관한 '제7회 대한민국스승상' 시상식이 5월 23일 서울 양재동 The-K호텔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 전영숙 경북 왜관초 교사 외 각 부문별 9명의 수상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에게는 우수 교원에게 주어지는 근정훈·포장과 상패가 수여됐다. 부상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원이,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이 주어진다.

시상식에는 문용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심사위원장인 최현섭 강원대 교수를 비롯해 수상자 가족 동료 등이 참석해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대한민국스승상은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헌신해온 진정한 교육자를 찾아 우리 시대의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 스승 존경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2년 공제회의 '한국교육대상'과 교육부의 ' 으뜸교사상'을 통합해 제정한 최고 권위의 스승상이다.

수상자 명단	
대상	전영숙 경북 왜관초등학교 교사
특수	김윤현 경기 다원학교 교사
	김인목 경기 샘모루초등학교 교사
초등	김영주 대구불로초등학교 수석교사
	박경애 경기 소하중학교 교사
중등	장기현 대구 포산중학교 교사
	민병윤 충주중산고등학교 교사
	김영학 경기 성호고등학교 교사
	신은주 순천대학교 교수
대학	김재근 신성대학교 교수

S2B(학교장터), 청렴계약 우수기관 시상식 개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학교장터)는 '2017년도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지난달 9일부터 권역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시상식은 지난 한 해 동안 S2B 이용실적, 전년 대비 증감률 등의 기준에 따라 청렴계약 우수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번 S2B 청렴계약 우수 기관으로 시·도교육청 부문에는 부산·울산·충북교육청이 선정됐으며, 교육지원청 부문에는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외 14개 기관, 초·중·고는 대전 동아미스타고등학교 외 33개 기관 등 총 52개 기관이 선정됐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울산강북교육지원청, 경북울진교육지원청,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제주영송학교는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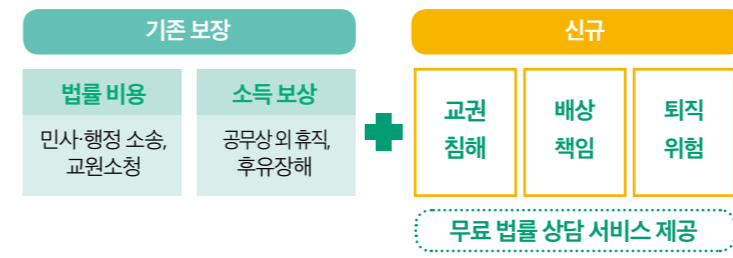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학교장터)는 '2017년도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지난달 9일부터 권역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S2B



The-K Family

The-K손해보험, '교직원안심보장보험' 보장 확대

교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보장



The-K손해보험은 '무배당 The특별한교직원안심보장보험' 상품을 개정해 교직원이 처하기 쉬운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 교사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 및 질병상해 퇴직위험까지 대비할 수 있는 보장 항목을 신설, 보장 범위를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 출시된 교직원안심보장보험은 업계 최초로 공무원 외 질병·상해 휴직일당 특약을 마련해 교직원의 휴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위험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주목 받았다. 교직원안심보장보험에 가입하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전화(1544-1441) 또는 이메일(theclaw@educar.co.kr)로 신청하면 교육 관련 전문 변호사가 상담해준다. 이번 상품 개정을 기념한 보험료 산출 이벤트도 진행한다. The-K손해보험 홈페이지(www.educar.co.kr)에서 교직원안심보장보험을 상담 신청한 후 가입 설계 등의, 보험료 산출까지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카페라테 쿠폰을 증정한다. 6월 29일까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The-K호텔경주, 썸머쿨 웨딩 이벤트

The-K호텔경주는 공제회원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예식일 기준)까지 '썸머쿨 웨딩 이벤트'를 실시한다. ▶ 뷔페 1인당 2000원 할인(음료·주류 포함) ▶ 3단 웨딩 케이크 ▶ 특수 연출 ▶ 아이스카빙 ▶ 스마트 청첩장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결혼식 당일 허니문객실(조식 포함)을 준특실로 업그레이드해준다. 또한 신혼여행을 떠나는 예비부부를 위한 샌드위치와 음료, 우인(友人) 증정용 아메리카노 이용권도 함께 제공한다. 단, 이번 이벤트는 뷔페 200명 이상 예약 시 적용된다. 천년고도 경주 보문단지 내 위치한 The-K호텔경주는 대구, 울산, 포항 등 인근 도시에서 접근이 편리하다. 1000여 대를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주차 시설과 최신 결혼식 트렌드에 어울리는 웨딩홀도 갖추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the-k-hotel.co.kr/gyeongju)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054-770-9156

The-K지리산가족호텔, 'Happy May June' 패키지 출시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6월 30일까지 '해피 메이 준(Happy May June)' 패키지를 판매한다. 객실 1박, 조식 2인, 온천 2인 이용권 구성으로 기념 소주 1병, 아메리카노 2잔도 제공한다. 가격은 17평형 기준 7만5000원이다. 또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군복무 중인 장병 및 군 입대 예정자가 투숙하면 조식, 온천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한다. 전남 구례 산동면에 위치한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온천 시설을 갖춰 여행으로 쌓인 피로를 풀기 좋은 숙소다. 특히 천연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된 온천수는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 등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문의 061-783-8100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6월 말까지 트로피칼 망고 페스티벌



제주시 탐동 해안가에 위치한 라마다프라자제주는 고품격 리조트형 비즈니스 호텔로 400개의 객실을 갖춘 5성급 호텔이다. 계절마다 제주의 계절 재료를 활용한 음식을 비롯해 고객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패키지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6월 말까지는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의 카페 '스쿠트라'가 여름철을 맞아 '트로피칼 망고 페스티벌'을 진행, 비타민 A가 풍부한 리얼망고주스, 헬씨망고요거트, 망고모히토 등 음료 3종을 새로 선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ramadajeu.co.kr) 참조.

☎ 문의 061-729-8100



월드컵 선전을 기원하며 치킨을 씹니다!

The-K 매거진 6월 즉석당첨이벤트

이벤트 기간
6월 1일~30일

월드컵도 식후경! 응원에 치킨이 빠질 수 있나요. 대한민국 승리를 기원하며 The-K 매거진이 치킨을 씹니다.
치킨이 내 품으로 골인~하길 바라며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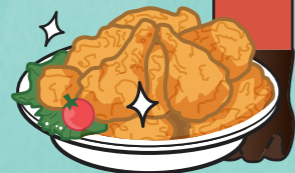


경기 일정

- 6.18 21:00
대한민국 vs 스웨덴
- 6.24 00:00
대한민국 vs 멕시코
- 6.27 23:00
대한민국 vs 독일

100개

BHC 반반치킨+
콜라 1.25L(모바일)



300개

GS편의점 5천원권
(모바일)



참여 방법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6월 즉석 당첨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마음에 드는 상품 정보를 확인합니다
→ 성별과 연령을 체크합니다.→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당첨된 분에 한해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모든 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기재 또는 미가입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프티콘은 7월 중순 발송 예정입니다.



나를 위한 완벽한 선물

남들은 걱정 없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도 무거운 짐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마음이 지칠 때.

나에게 힘이 되는 보험
교직생활 퍼펙트공제



질병 휴직·공무상 퇴직 시
경제적 지원

우울증·공황장애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술·암진단·뇌경색 등(특약)
폭넓은 보장